

갤럭시S6 국내 반응 '냉랭'

metro®

메트로 2015년 3월 18일 수요일 제3177호 www.metroseoul.co.kr



김희선 '앵그리맘'으로 컴백

누가누가 더 썩었나

검찰, 포스코 이어 신세계·동부도 수상한 돈 추적

p/2, 3, 11, 12

작심한 朴 대통령 "비리덩어리 뿌리째 들어내야"



이명희 신세계회장

김준기 동부그룹회장

정용진 신세계부회장

'이재용 스마트카' 독일에서 맛보기

p/9

차세대 SUV '올 뉴 투싼' 출시

p/10

포스코, 大宇 비자금 수법 베꼈나?

대우물산, 세계경영 비자금 조성…박영준, 대우 해외투자 국내책임자 경력
포스코 대우인터내셔널(대우물산 후신) 인수 당시 '비자금 조성 의혹' 제기돼

포스코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대우그룹 식의 비자금 사건으로 비화될지 주목된다. 포스코 계열사인 대우인터내셔널이 이명박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드는 과정에서 당시 정권 실세들의 이권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검찰이 눈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와 대우그룹 간 연결고리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다. 박 전 차관은 1986년 대우그룹 계열사인 대우HMS에 입사했고, 이후 대우그룹 기획조정실로 옮겼다. 1994년 이상득 전 의원 비서관으로 가기 전까지 해외투자 관련 업무를 조정하는 국내 실무 책임자를 맡았다. 이명박정부가 박 전 차관을 중심으로 자원외교를 적극 추진한 것도 이 같은 박 전 차관의 경력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많다. 박 전 차관은 2012년 언론 인터뷰에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세계경영을 외치며 그때부터 아프리카 곳곳을 누비고 다녔다"며 "(내가) 아프리카에 관심을 갖게 된 건 그때부터"라고 말한 바 있다.

대우그룹은 1980년대 후반부터 해외로 눈을 돌려 동유럽을 중심으로 신흥시장을 개척하며 일대 도약을 이뤘다. 1997년 외환위기로 경영난을 맞이하기 전까지 세계경영을 통한 고속성장을 계속했다. 특히 대우물산은 사회주의국가, 중앙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동구권 등 한국기업에는 처녀지인 곳까지 진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우물산은 현지에서 공장, 시설, 납품원가 조작 등의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에 사용했다. 이를 통해 독점권, 개발권, 탐사권 등 각종 이권을 확보하는 등 부패한 모습을 함께 보였다.

대우물산은 외환위기로 대우그룹이 몰락한 뒤 대우인터내셔널로 이름을 바꿔 명맥을 유지했다. 포스코는 정준양 회장 취임 이후인 2010년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했다. 당시 인수비용은 3조4000억원으로 경쟁업체가 제시한 액수보다 2000억원가량 더 많았다. 이 같은 고가매입으로 이명박정부에서 자원외교를 정부 주도로 하기 위해 포스코로 하여금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당시 파다했다. 박 전 차관이 2009년 정 회장 취임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이 이때 다시 불거지기도 했다. 결국 대우그룹의 해외자원개발 인맥을 쉽게 활용하기 위해 박 전 차관과 이 전 의원, 정 회장이 이뤄낸 합작품이라는 의혹으로 이어졌다.

이때 정치권에서는 "포스코가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수천억원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한 뒤 정 회장이 자신의 측근인 이동희 포스코 사장을 대우인터내셔널 부사장으로 임명해 해외 투자시 투자금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 대우인터내셔널은 포스코 계열사가 된 직후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해 여러 곳에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자원광물공사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프로젝트에도 투자했다. 모두 부실투자 의혹이 제기된 사업들이다. 특히 니켈광산 프로젝트는 함께 투자했던 다른 기업들이 손실을 막기 위해 지분을 매각하는 상황에서도 사업을 유지해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보기도 했다.

박 전 차관은 2012년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포스코의 대우인터내셔널 인수는 순수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철강사업에 주력해 온 포스코가 향후 금속소재사업으로 가려는데 그러려면 자원이 필요할 것 아니냐. 국내에서 자원개발 경험이 가장 많은 곳이 대우인터내셔널이니까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시 자원 가격이 폭등해 자원 확보의 적절한 시점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아이스버킷 챌린지' 달라진 것 없다

metro HongKong

열기 식으며 또 다른 고통


萬中無一例絕症漢呼救

루게릭 환자를 돕기 위한 '아이스버킷 챌린지' 열기가 급속히 식으며 환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메트로 홍콩은 지난해 8월 인터뷰 했던 루게릭 환자 마이크(42)의 사례를 17일 전했다. 마이크(42)의 경우 아이스버킷 챌린지 열기가 한창이던 지난해 만해도 매주 친구들이 찾아왔다. 메트로 홍콩에 인터뷰기사가 실리면서 지인들의 방문도 줄을 이었다. 친구와 지인들의 병문안은 마이크를 웃게 만들었고 팔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병세도 호전됐다. 하지만 반년이 지난 현재 가족들조차 방문이 뜸해지면서 마이크는 두 손이 떨리고 전신마비에 가까운 상태다.

특히 마이크는 유전자 검사 결과 루게릭병 진단이 오진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그가 앓고 있는 질병은 더 희귀한 샌드호프병이었다.

담당의사는 "마이크의 신경계 이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발병 중기에 해당한다"며 "다행히 마이크는 독일 로스톡대학교 임상연구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치료비는 무료지만 독일에서 숙소와 간병인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남아있다. 하지만 마이크는 '앞에 불이 있어도 헤쳐 나가야 한다'며 치료의 의지를 보였다. /정리=이국명기자



세월호 유가족, 뉴욕 맨해튼 도보행진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뉴욕에 온 '동혁이 엄마' 김성실씨와 '경빈이 엄마' 전인숙씨 등 세월호 유가족을 포함한 한인들이 15일 맨해튼 뉴욕 타임스 빌딩앞에서 32가 브로드웨이 코리아타운 앞까지 도보행진을 벌였다. 김성실씨와 전인숙씨는 세월호의 안전한 선체 인양과 진상 규명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눈물로 호소했다. /뉴욕세사모 제공



김무성 "괜찮아요?" 로봇연기 감행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당의 정치참여 애플리케이션(앱) 명칭 공모전을 홍보하는 동영상에서 최근 연예인 장수원이 히트시킨 '로봇 연기'를 선보였다.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은 정치참여 앱 명칭 공모전을 16일부터 23일까지 당 홈페이지(www.saenuriparty.kr)에서 진행한다. 수상작은 30일 발표된다. /연합뉴스

"야당 근거없는 의혹 제기에 쿠르드 정부 항의"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소속 여당 위원들은 17일 "야당의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쿠르드 정부가 항의서한을 보내는 등 외교문제가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여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하며 "야당이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위원들은 "최근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쿠르드 정부에 지급한 석유공사의 (계약서에 서명해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서명보너스가 현지 관료에게 뇌물로 전달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이에 "쿠르드 정부는 반박성명을 내고 우리 정부와 국회에 항의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위원들에 따르면 쿠르드 정부는 성명에서 서명보너스를 받은 계좌의 이체내역과 사용처까지 밝히며 의혹을 반박했다.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소속 권성동 여당 간사(오른쪽)와 이현재 의원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라크 쿠르드 원전 개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 의원은 "쿠르드 정부는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며 "야당의 묻지마 폭로 탓에 탐사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으며, 국가적 망신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 말고도 야당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상대국을 자극해 사업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한다"며"앞으로는 국정조사가 생산적으로 진행되도록 야당이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내 친이계(친이명박)인 권 의원은 회견 후 최근 이완구 국무총리가 자원외교를 수사 대상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권 의원은 "자원개발 과정에서 부정이 있으면 당연히 엄벌해야 하지만, 이는 조용히 수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하면 될 일"이라며 "지금이 80년대도 아니고 '부패와의 전쟁' 담화까지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윤아기자 yoona1@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 2년여만에 대면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문 대표와의 만남은 지난 대선 이후 2년여만이다. 박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하지만 문 대표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데 실패했다. 총체적인 위기"라고 비판하면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4대 과제의 해결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이번엔 비리 뿌리 찾아내야"

'부패와의 전쟁' 박 대통령 버전…"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라"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이완구 총리의 담화 직후 불고 있는 강력한 사정 바람과 관련해 "이번에야말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서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단 국방분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켜켜이 쌓여온 고질적인 부정부패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국무총리께서 추진하는 부패청산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국민과 나라 경제를 위해 사명감으로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란다"며 "각 부처는 향후 30년의 성장을 위한 토양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부패척결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사정대상인 비리 행위를 두고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터와 세계 곳곳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가 기간을 흔들고 국민의 세금을 개인의 사욕을 위해 남용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범죄이며 국가경제를 뒤흔드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작년 11월에 발족된 방산비리 특별감사단과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군의 무기수주 납품과 이와 관련된 각종 비리가 속속 확인되고 있어 국민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런 비리들은 오랫동안 쌓여온 심각한 적폐들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려 했던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국민 안전을 희생하고 혈세를 축내면서, 또 공정한 경쟁과 보상을 왜곡하는 부정부패를 늘 그래왔던 관행이나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업 관행이라는 식으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사정 시기를 선택한 배경과 관련해서는 "저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일은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왔다"며 "사회의 만연된 이런 관행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를 어떻게 어떻게 살려냈다 하더라도 제자리걸음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인식에서 국제사회도 저마다 부정부패 척결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다할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는 더더욱 깨끗한 정부, 청렴한 인재,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대한민국의 경쟁력으로 발전시켜야하겠다"고 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한미, '사드 반대' 중국 비판 한목소리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여부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한국의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의견이 미국으로 기우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는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 측 입장 표명이 있은지 하루만에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방한하고 국방부가 중국 측 사드배치 반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주변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나름대로 입장은 가질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을 겨냥한 우리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은 관계기관과 조율한 결과로 사실상 정부 입장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중국 비판은 중국 차관보급 인사의 사드 반대 발언 이후 러셀 미 차관보의 방한에 맞춰 나왔다. 전날 방한 중이던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한반도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 "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주면 감사하겠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발언 수위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는 공식적인 언급보다 높은 것이어서 사실상 '압박' 수준으로 평가됐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중국의 사드 반대 입장 표명과 관련해 "아직 배치되지 않고 여전히 이론적인 문제인 안보시스템에 대해 제3국이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나선다는 것을 의아(curious)하게 여긴다"며 "한미 양국은 북한의 점증하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의한 상당한 위협에 직면에 있으며 우리 군 당국은 그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한국 시민,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고려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한미 양국이 중국에 대해 사드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고 입을 맞춘 셈이다. /정윤아기자 yoona1@

"북한 한수원 해킹 위협 중단해야"

정부는 17일 최근 국내 원자력 발전소 자료 유출과 가동 중단 협박 사건이 북한 해커조직의 소행으로 판단된다는 수사 결과와 관련, 북한을 규탄하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 관련 자료를 절취한 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원전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고 관련 자료를 여러 차례 나누어 공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 한 것은 우리 안보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이날 '한수원 사이버테러 사건'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북한의 해커조직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한수원 직원 3571명에게 5986통의 파괴형 악성코드 이메일을 발송해 PC 디스크 등을 파괴하려고 시도했으나 PC 8대만 감염되고 그 중 5대의 하드디스크가 초기화되는 정도에 그치는 등 사실상 실패했다고 밝혔다. /정윤아기자

김무성, 유승민 '사드 논의'에 제동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문제 공론화를 추진 중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해 김무성 당 대표가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에 참석 뒤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란과 관련해 "국정 운영의 가장 예민한 부분 중 하나"라며 "당에서 토론해서 결정할 성격은 아니다. 정부에 맡겨 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원내대표가 사드 도입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유 원내대표 개인 주장"이라며 "일반 의원들은 사드를 잘 몰라 의원총회를 통해 '사드는 이런 것이다' 설명하고 브레인스토밍(자유토의)하는 기회를 갖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총에서 그렇게 예민한 부분을 결정하는 상황은 아니다"며 "외교와 국방과 관련된 예민한 부분은 정부의 몫"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드리면 커지는 것"이라며 "(정부에) 맡겨 놔야 한다"고 밝혔다. /정윤아기자



속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개성공단 입주 기업과 영업소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부측의 북한 임금인상 요구에 대한 대책 설명회에 참석해 이강우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하태경 "교무수석 폰 해킹 당해"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스마트폰이 최근 해킹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흘 전 김 수석의 스마트폰이 해킹됐다는 제보가 있었고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사실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킹이 되면 안에 저장한 모든 스케줄이 다 빠져나가고 좀비 스마트폰이 돼서 제3자의 도청에 활용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도둑 촬영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악성앱이 타인에게 무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다른 스마트폰도 똑같이 오염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며 "김 수석의 스마트폰이 해킹당했다는 것은 비서실장, 대통령, 다른 수석들도 해킹당했을 개연성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청와대는 공무에 이용되는 휴대전화가 해킹당했을 때 북한과의 관련성 여부와 2차, 3차 피해 확산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청와대 내 보안교육 매뉴얼이 제대로 구축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사결과에서 책임이 드러나는 사람은 모두 정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정윤아기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 위한 세미나 개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이주여성 활동가를 위한 세미나를 이달 말부터 정기적으로 연다.

세미나는 매월 두 차례 다양한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세미나는 20일 오후 6시30분 서울 종로구 센터 교육장에서 열린다. '외국인 보호소의 이주민 인권 상황'을 주제로 지난해 외국인 보호소 실태조사에 참여했던 김연주 변호사가 발표한다.

센터는 "이주여성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이주여성의 인권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다뤄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석 희망자는 오는 18일까지 세미나에 참석하고 싶은 이유 등을 간단하게 작성해 이메일(kwmigrant@daum.net)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센터는 한국어 방문 무료 교육 신청도 다음달 15일까지 받는다. 서울에 거주하는 이주여성 또는 국제결혼가정 자녀면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www.wmigrant.org)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이메일(wmigrant@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Korea Immigrated Women Human Rights Center hosting activist seminar

Korea Immigrated Women Human Rights Center is planning to host seminars regularly for immigrated women activist starting at the end of this month. The seminar will be opened twice a month with variety of topics. The first seminar will be held at Seoul Jong-Ro gu center education hall on the 20th of this month at 6:30pm. The presenter will be Kim Hyun Ju lawyer who has given a presentation on last year on "Immigrants' human rights status of foreigners' shelter" The center has stated that they are hosting this seminar to enforce and strengthen immigrated women activist and is planning on approaching problems regarding immigrated women human rights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Anyone who hopes to participate can register through e-mail at kwmigrant@daum.net with a brief comment on the purpose of your visit. On the other hand, Free Korean education visitation program will start receiving registration on the 15th of next month. All immigrated women living in Seoul or children of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 can register. You can download the registration form at www.wmigrant.org and sent it to wmigrant@naver.com.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PAGODA

"아베 과거사 사죄 없으면 정상회담 하지 않겠다"

중국, 일본에 돌직구…무라야마도 사과 촉구

한·중·일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가 아베 담화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17일(현지시간)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아베 담화 내용을 지켜 본 뒤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한·중·일은 이번달 말 서울에서 개최될 3국 외교장관 회의 때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는 8월 15일 세계 제2차 대전 종전을 맞아 과거사 인식과 동북아 비전을 담은 담화문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에 중국은 아베 담화 내용을 확인한 뒤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시기에 대해 판단하겠다는 의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아베 담화가 '1998년의 공동 선언을 포함, 양국 간에 작성된 4개의 기본 문서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복수의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전했다. 1998년 당시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공동 선언은 '중국에 대한 침략' 표현과 함께 일본 과거사 사죄 내용이 담긴 무라야마 담화 계승 방침을 담은 것이다. 4개 기본 문서에는 1972년 중일 공동성명, 1978년 평화우호조약, 2008년 전략적 호혜 관계에 대한 공동 성명도 포함된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종전 담화의 과거사 발언 수위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무라야마 담화의 핵심 표현인 '식민지배와 침략' '통절한 반성'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등을 계승할 것을 촉구했지만 아베 총리는 "전체로서 계승한다"며 모호한 답변만 내놓은 상태다.

한편 무라야마 전 총리는 지난 9일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냐고 중국과 한국이 걱정하고 있다"며 "역사적 사실은 확실히 해야 한다.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한다.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를) 수정해서 희석하면 세계의 불신을 산다. 그것이 가장 두렵다"고 아베 정권을 일갈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아베 신조 총리가 16일 도쿄 유엔대학에서 열린 유엔 창설 70주년 기념 심포지엄 연설에서 "일본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역할을 맡을 용의가 있다"고 말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AP 연합뉴스



11일 만에 나타난 푸틴 "소문 없으면 심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알마즈벡 아탐바예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 스트렐나 지역의 콘스탄티노프스키 궁에 나타났다. 이날 푸틴의 공식석상 등장은 건강 이상설과 늦둥이설 등 갖가지 소문이 난 지 11일 만의 일이다. 푸틴은 회담 전 기자들에게 "소문이 없으면 심심하지 않느냐"고 농담을 던졌으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신화통신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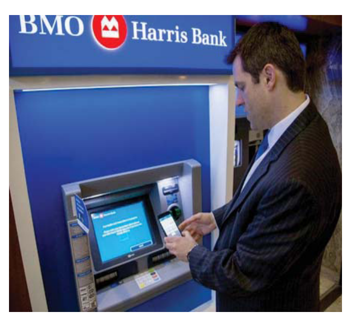
스마트폰만 대고 현금 인출

'무카드 ATM' 미국서 확산

스마트폰으로 돈을 찾을 수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미국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시카고 트리뷴·비즈타임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BMO 해리스 은행은 16일(현지시간) 직불카드 등 카드를 투입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돈을 출금할 수 있는 ATM 750대를 도입했다.

카드를 이용해 ATM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카드 사기를 줄이기 위해서란 설명이다. '무카드 ATM'을 이용하면 카드를 ATM에 인식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카드 정보 등의 불법복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거나 도둑맞아도 걱정없다. 원격으로 앱을 삭제해 거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스마트폰과 ATM 간 주고받는 정보도 암호화돼 있으며 거래 종료 이후에는 메타 데이터가 사라지기 때문에 정보 유출 가능성도 거의 없다.



/비즈타임즈 제공

사용방법도 간단하다. 스마트폰에 모바일 뱅킹 앱을 설치한 후 찾을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ATM에 있는 메뉴 중 '모바일-캐시'를 누르고 스마트폰에 나타난 QR 코드를 인식시키면 ATM에서 돈이 나온다.

돈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도 짧다. 카드 삽입 방식 ATM의 거래에는 평균 45초가 걸리지만 무카드 ATM을 이용하면 3분의 1인 15초로 줄어든다.

이보다 앞서 시카고 지역과 위스콘신 주 남부에서 금융업을 하는 '윈트러스트 파이낸셜'도 지난해 8월부터 175개 ATM 전부를 카드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시티 내셔널' 역시 지난해 6월에 카드 없는 ATM에 대한 테스트를 완료하고 도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국명기자 kmlee@

“금융사 자율책임문화 조성”

임종룡호 금융개혁 출발… “자본시장 활성화”

앞으로 거래소 제도는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시장으로 개편된다. 또 연기금 운영에 국내 금융사들의 참여 기회가 늘어나며, 금융회사의 지속적 혁신과 성장이 가능토록 자율책임문화가 정착될 전망이다.

17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개혁 청사진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지금을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보고 금융개혁을 과감·신속 추진하겠다”며 3대 전략과 6개 핵심과제, 18개 세부과제를 포함한 ‘금융개혁 방향과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3대 전략으로는 자율책임 문화 조성과 실물지원 역량 강화, 금융 산업경쟁 제고 등을 제시했다. ▲금융감독 쇄신 ▲금융사 자율문화 정착 ▲기술금융 확충 ▲자본시장 기능 강화 ▲핀테크 육성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등이 핵심과제로 꼽혔다.

금융위는 우선 감독·검사·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금융사 수수료와 배당 등의 시장기능 존중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율문화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사 개인에 대한 확인서와 문답서 징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 실질적인 컨설팅 검사를 정착하겠다”며 “금융사의 수수료나 금리, 배당수준 등은 자율성 원칙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사 자율문화 정착차원에서는 “혁신성 평가시 은행 역량강화와 혁신노력을 반영할 것”이라며 “보수적 관행의 변화를 유도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성과평가와 보상체계 구축 등의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금융위는 특히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시장이 각각의 특성에 맞게 경쟁하면서 발전할 수 있게 거래소 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사모펀드의 설립·운용·판매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모험자본 투자에 대한 불합리한 위험가중치 조정 등의 제약요인을 완화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1300조원에 달하는 연기금 운영에는 국내 금융사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갈수록 확대되는 연기금 운영에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 강화와 핀테크 육성 등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문제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핀테크 육성차원에서 “미래부 등과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립, 자금조달부터 행정·법률상 애로사항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계획”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은 예정대로 6월말까지 도입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금융규제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권한·역할을 명확히 해 금융사의 중복부담을 없애고 복합점포 활성화, 온라인 판매채널 상품 다양화, 은행계좌이동 서비스 제공 등 칸막이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금융개혁 전담조직’을 구성해 규제개혁이 현장에 기초하고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금융현장을 중심으로 위원장이 매주 1~2회 현장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위원장이 참여하는 ‘金요회’를 신설하는 동시에 주요 주제별 세미나를 진행키로 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market index <17일>

구분	지수	변동
코스피	2029.91	(+42.58)
코스닥	636.05	(+0.65)
금리(국고채 3년)	1.86	(변동없음)
환율(원·달러)	1126.32	(−4.15)



‘수출입 통합한도 금융’ 출시

우리은행은 17일 수출입거래 관련 대출한도를 하나로 통합한 ‘수출입 통합한도 금융’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별도 한도를 받아야 했던 ▲무신용장 방식의 수출환어음 매입거래와 ▲수입신용장 개설거래 ▲운전자금 용도의 외화대출 등 세 가지 대출한도를 하나로 통합한 상품이다.

기업들은 용도별로 각각 약정할 필요 없이 한 번의 약정 체결로 해당 거래들을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존에 개별로 약정시 한도가 부족하면 이용할 수 없었던 대출과목도 통합한도 범위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1년으로 약정하지만 연장이 가능하다.

또 수출입거래가 많이 발생하는 미 달러화(USD), 일본 엔화(JPY), 유로화(EUR), 영국 파운드화(GBP), 스위스 프랑화(CHF), 중국 위안화(CNY) 등 6개 통화로 약정할 수 있다.

아울러 별도의 담보없이 신용등급에 따라 한도를 체결해 이용 가능하다.

신광춘 우리은행 기업영업전략부 부장은 “예상치 못한 수출입거래로 일시적인 한도부족을 겪게 될 기업들이 신속하게 유동성 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라며 “은행입장에서도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거래에 대한 불필요한 한도를 줄일 수 있어 신용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아란기자

중견건설사 작년 경영실적 극과 극

2014년 실적 발표가 마무리됐다. 대형건설사는 대림산업을 제외한 대부분 전년 대비 양호한 성적을 거뒀지만 중견건설사는 업체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17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중소형 건설사 20개 중 연간 순손실을 기록한 적자 기업 수는 2013년 13개에서 2014년 9개로 감소했다. 부동산시장 회복에 힘입어 중견건설사의 실적도 개선된 것이다.

특히 삼호와 금호산업, KCC건설 3곳은 시장 회복과는 별개로 구조조정과 자본확충으로 체질 자체를 개선한 건설사로 꼽혔다. 이 중 삼호는 지난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 대비113%, 243% 증가한 675억원, 288억원에 이르렀다. 워크아웃 졸업도 내년이면 가능할 전망이다.

이 외 동원개발과 서한, 아이에스동서 등 3개 업체는 자체사업으로 수익성 극대화에 성공했다. 또 코오롱글로벌과 이테크건설 등은 비건설 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확보했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견건설사 실적 개선의 주된 이유는 시장 회복의 영향이 크지만 모두 낙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시황 개선을 누리는 업체들은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빨랐고 체질개선을 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경남기업과 울트라건설은 3월 말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기 전까지 자본잠식을 해소하지 못하면 증시에서 퇴출된다.

경남기업은 최근 지난해 영업손실 1827억원, 순손실 2657억원을 기록하며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경남기업의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492억8936만원으로 돌아섰다. 직전 연도 자본총계는 1091억5521만원이었다.

울트라건설도 영업손실 513억원, 당기순손실 841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이에 지난 13일 한국거래소가 ‘자본전액잠식 및 감사의견 비적정설의 사실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고, 울트라건설 측은 “아직 감사보고서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울트라건설의 주식은 풍문사유 미해소를 이유로 13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밖에 남광토건과 삼환기업도 각각 1056억원과 65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다. 동부건설도 2013년과 2014년도 연속 1780억원과 2111억원의 순손실을 내 자본잠식률이 80%에 육박한 실정이다.

/박선옥기자 pso9820@



5만원권 급증…시중화폐 사상 첫 80조 돌파 5만원권의 유통이 증가하면서 시중 유통화폐가 80조원을 넘어섰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기념주화를 제외한 시중에 유통 중인 화폐는 80조3811억원을 기록했다. 시중 유통화폐가 8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기간 5만원권의 유통액은 56조20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2%(13조91억원) 증가했다. /연합뉴스

농협금융 차기회장 인선 돌입

농협금융지주가 차기 농협금융 회장 인선 작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 이사회는 이날 오후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차기 회장 선임 작업에 착수했다.

회추위는 농협중앙회장이 추천한 1명과 사외이사 2명, 이사회 추천 외부 전문가 2명 등 5명으로 이뤄진다.

회장 후보는 외부 헤드헌팅업체 추천 등으로 60명가량의 후보군이 꾸려지고, 이들 가운데 3~5명을 추려 면접을 거친 후 최종 후보자를 뽑게 된다. 이어 회추위 4명의 찬성을 얻어야 내정된다. 현재 차기 농협금융 회장 후보로는 김주하 농협은행장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허경욱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김태영 전 농협중앙회 부회장, 정용근 전 농협중앙회 신용대표, 윤용로 전 외환은행장 등이 언급되고 있다.

/백아란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강 세 준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오익환 DGB생명 사장, 현장 경영 강화 위한 전국 지점 순방 오익환 DGB생명 사장이 최근 전국 지점을 순방하는 등 최근 현장 중심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17일 DGB생명에 따르면 오 사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3월 한 달간 전국 지점을 순방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콜센터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앞서 오 사장은 지난 1월 사장으로 선임된 이후 현장 중심 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3개 지역단을 신설하기도 했다. /DGB생명 제공

KDB생명, 매각 탄력 받나

지난해 호실적 불구, 산은 출신 안양수 신임 사장 내정

KDB생명이 지난해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조재홍 사장의 연임을 포기하고 안양수 수석부사장을 신임 사장으로 내정했다. 업계에서는 모 기업인 산업은행 출신인 안 부사장을 내정해 지난해 실패한 매각작업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DB생명은 16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안 수석부사장을 신임 사장으로 내정했다. 안 내정자는 오는 31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업계에서 조 사장의 연임을 예상했던 만큼 이번 인사는 의외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 2012년 3월 선임된 조 사장은 '다이렉트 보험'을 출시, 매월 1000건 이상 판매하는 등 경영 실적을 개선한 것으로 인정받았기 때문. 지난해 당기순이익도 전년보다 무려 1344%가 증가한 655억2700만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보험업계 경력이 전무한 안 내정자가 모기업인 산은 출신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인사는 산은의 KDB생명 매각 준비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앞서 산은은 지난 2010년 칸서스자산운용과 공동으로 6500억원의 펀드 자금을 투입, KDB생명(구 금호생명)을 인수한 후 투자금 환수를 위해 지난해 2월과 3월 보통주 100만주를 총 77억6200만원에 장내매도하는 등 매각작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산은은 지난해 4월과 8월 두 차례 지분 85.05%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시도했지만 불발에 그쳤다.

매각 무산의 가장 큰 걸림돌은 매각 자금이었다. 산업은행이 KDB생명 인수 당시 펀드 자금 외에도 유상 증자 등으로 8500억원을 투입한 상황에서 1조원가량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수에 관심을 보였던 DGB금융지주와의 가격 협상에 실패했다.

업계 관계자는 "KDB생명이 전년 대비 급속한 성장을 달성한 만큼 이번 신임 사장 내정은 예상치 못한 결정"이라며 "안 내정자가 산은 출신인 점과 2년간 수석부사장을 역임하면서 실질적인 총괄을 해온 점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KDB생명의 대주주인 KDB-칸서스밸류 사모펀드(PEF)가 지난달 펀드 만기를 2년 연장한 상황에서 급하게 매각작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은 실적 개선을 통한 경영 정상화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未분양' 가재울 4구역 '美분양'?

일반 분양권 프리미엄 최대 7000만원

10월 입주가 예정돼 있는 서울시 서대문구 가좌동 가재울 뉴타운 4구역에 훈풍이 불고 있다. 도심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이라는 평으로 미분양의 늪에서 허덕이던 이 곳이 아파트 분양시장의 열기를 이어 받는 모습이다.

1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대문구 미분양 아파트는 156가구다. 이 중 105가구가 DMC 가재울 4구역에서 나온 물량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지역은 GS건설·SK건설·현대산업개발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을 맡았고 지난 2013년 7월 청약을 시작으로 분양에 돌입했다. 총 4300가구 규모로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1550가구가 일반분양됐다. 17일 현재 기준으로 미분양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재울 뉴타운 지역은 '제2의 여의도'로 불리는 상암동의 대체주거지역으로 주목 받았다. 또 인근에 합정역 등 홍대상권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다.

하지만 분양 실적은 내로라하는 대형 건설사들이 대거 참여해 대규모 브랜드 단지가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결국 그래봐야 상암·마포 대체지역이라는 것이다. 상암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미 말도 안되게 가격이 올라 더 오르길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상암동처럼 기업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마포처럼 상권이 발달한 것도 아닌데, 이들 지역에 근접하다는 것 빼고는 장점이 없다. 자체적으로 오르기 보다는 상암동 아파트 가격에 따라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와 달리 최근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이 곳 아파트 분양권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전용면적 84㎡ 기준 일반 분양권은 5억5000만원, 조합원 분양권은 5억8000만원까지 올랐다. 최초 분양가가 최저 4억8000만원 선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일반 분양에서 최대 7000만원이 올랐고 조합원 물량까지 합치면 1억원까지도 차이를 보인 것이다.

남가좌동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9월부터 서서히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했다"며 "상암동보다 약 1억원 낮게 매매가가 형성돼 있고 내 집 장만을 염두에 둔 사람들이 많다보니 요즘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가격 오름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지역에는 매매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보다 실제로 살 집을 찾는 실수요자들이 대부분이다.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입지에 비해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평이다. 금리인하와 전세난으로 내 집 마련 여건이 좋아진 시장 상황 때문이지 가재울 뉴타운 지역 자체가 좋다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책임연구원은 "가재울 뉴타운은 지역의 미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청사진이 아직은 부족한 느낌"이라며 "상암동을 대신 할 주거지역이라는 말은 결국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한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런 면에서 지금 형성된 가격은 그리 저렴한 편은 아니다"고 조언했다.

/김학철기자 kimc0604@



마포한강 2차 푸르지오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 13.7대 1 대우건설이 분양한 마포 한강 2차 푸르지오 오피스텔이 1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됐다. 청약 마지막날인 16일 접수를 위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다. /대우건설 제공

삼성물산, 자양4구역 '래미안 프리미어팰리스' 분양

삼성물산이 서울 광진구에서 2015년 마수걸이 분양에 나선다.

삼성물산(대표 최치훈)은 이달 광진구 자양4재정비촉진구역에서 '래미안 프리미어팰리스'를 분양할 계획이다.

지하 4층, 지상 29층, 2개동, 전용면적(이하 동일) 59~102㎡ 아파트 264가구와 31~65㎡ 오피스텔 55실로 구성된다. 이중 아파트는 84㎡ 109가구와 102㎡ 20가구 총 129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오피스텔은 51실이 일반분양 몫이다.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이 도보 5분 거리이며, 자양로와 강변북로, 잠실대교, 청담대교 등의 도로망을 갖췄다. 뚝섬한강공원, 서울 어린이대공원, 스타시티몰, 롯데백화점, 건국대병원, 광장문화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자양초, 건국대학교 사대부속 중·고교가 통학권 내 있다.



래미안 프리미어팰리스 조감도.

삼성물산은 고급 주거단지의 이미지에 걸맞게 내부 상품을 고급화하는 한편, 실속까지 잡겠다는 각오다.

우선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2개의 주동을 배치해 각 동간 간섭을 최소화하고, 저층부 석재마감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할 예정이다. 내부는 가변형 벽체 설계로 입주민 스스로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했다. 지하에 세대창고를 제공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 지열 냉·난방 시스템 등으로 공용관리비를 아낄 수 있도록 했다. 지하주차장에는 소비전력이 적은 LED 램프를 사용한다. 또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들의 대기전력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도 적용할 예정이다.

삼성물산 분양 관계자는 "광진 트라팰리스 이후 광진구 일대 오랜만에 선보이는 주거단지로 브랜드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라고 말했다. 문의)02-4001-888

/박선옥기자 pso9820@

PRUGIO

대우건설

마포 한강 2차 푸르지오, 오피스텔 투자의 핫플레이스 이야기!

투자고수가 홍대로 간 까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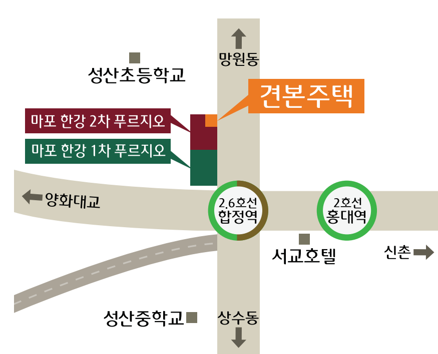


홍대상권 10년만의 브랜드 오피스텔, 푸르지오가 있기 때문이죠!

요즘같은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여러분께 희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홍대상권**이 요즘, 문화의 중심에서 투자의 중심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공항철도 개통으로 수많은 외국인들이 유입되고 대형 연예기획사나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둥지를 틀면서 **부동산 가치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홍대상권에 무려 **10년 동안이나 브랜드 오피스텔이 없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마포 한강 2차 푸르지오 오피스텔이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생 및 직장인 등 다양한 임대수요를 흡수하는 **합정역 더블역세권**은 기본, **단지 지하로 직접 연결**되는 합정역에 **최고 34층 초고층**으로 완성되는 놀라운 설계까지! 입지부터 브랜드, 제품까지 정말 핫하죠?

마포 한강 2차 푸르지오 오피스텔

견본주택 개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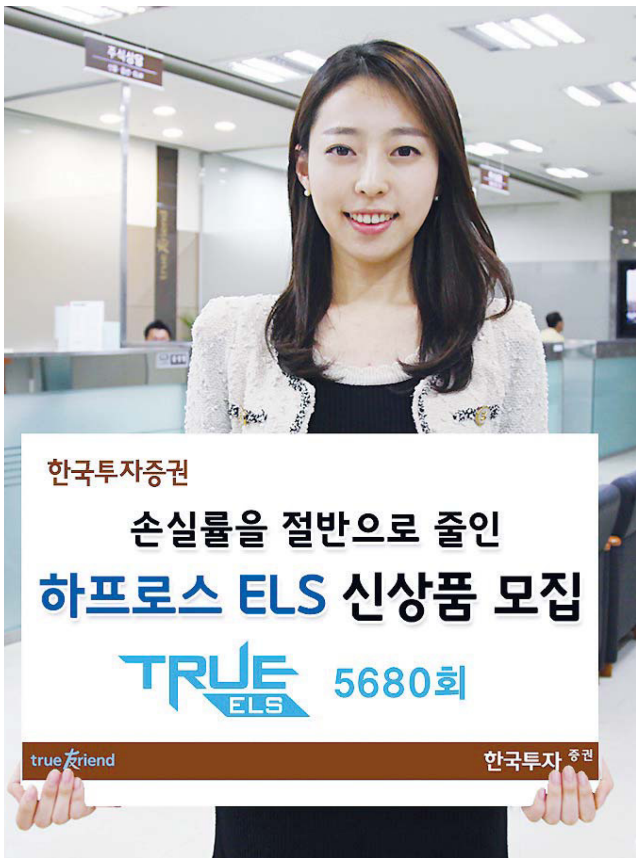
Daum 마포 한강 2차 푸르지오

총 448실 23㎡ / 25㎡

시행 코리아신탁(주) 시공 (주)대우건설 위탁 (주)파나씨티

문의 02)337-5377

■위치 :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5-1번지 일대(2구역) ■연면적 : 27,726.23㎡ ■분양용도 : 오피스텔 ■상기 사진 및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릅니다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손실률 절반 '하프로스 ELS' 출시

한국투자증권이 오는 19일까지 KOSPI200, HSCEI, EUROSTOXX50을 기초자산으로 한 신상품 하프로스 ELS 5680회를 총 30억 한도로 모집한다. 하프로스 ELS란 녹인(원금손실 발생 기준가격) 발생 후 손실 상환시, 만기 기초자산의 하락률만큼 발생하는 기존의 원금 손실률을 절반으로 줄인 새로운 상품을 말한다.

만기는 3년으로 6개월마다 주가지수가 모두 최초기준가의 95%(6개월, 12개월), 90%(18개월, 24개월), 85%(30개월, 만기) 이상이면 연 6.00% 수익이 달성된다. /김민지기자

"배당수익률 > 은행금리"

증권업계 대형주 3분의 1 올 2%이상 고배당 전망

올해 국내 주요 기업의 배당수익률이 2%를 넘길 것으로 전망됐다.

기준금리가 사상 첫 1%대로 떨어지면서 주요 기업들의 배당수익률이 은행 금리를 웃돌게 된 셈이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인 종목 131곳 중에서 2015년 예상 배당수익률이 2% 이상인 종목은 32.8%에 해당하는 43곳으로 나타났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하이트진로(4.99%), 한국전력(4.68%), 기업은행(3.77%), GKL(3.66%), 메리츠종금증권(3.49%), SK텔레콤(3.39%), 동부화재(3.26%), 현대해상(3.26%), 강원랜드(3.18%), GS(3.15%) 등의 배당수익률이 상위권에 포함됐다.

증권사들이 올해 실적 전망치를 발표한 상장사 388곳 가운데 배당수익률이 2% 이상인 기업은 25.0%인 97곳으로 집계됐다. SK C코오롱PI, 정상제이엘에스, 유진테크, 아주캐피탈, 이수화학, 삼원강재, 한국전력, KT&G, 에스코 등의 예상 배당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김성노 KB투자증권 매크로전략팀장은 "정부의 배당 촉진 정책과 기업들의 주주친화 경영 강화로 배당수익률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은행 금리는 하향세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낮추면서 1%대 은행 예금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씨티은행 프리스타일예금(연 1.60%), 농협 채움정기예금(연 1.84%), 신한은행 신한S드림 정기예금(연 1.90%), 외환은행 YES큰기쁨예금(연 1.80%) 등이다.

예금 금리와 연관성이 깊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연 2% 선이 무너졌다. 전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1.856%로 0.013%포인트 하락해 연중 최저치를 또 경신했다. 주식시장으로는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 팀장은 "자본금 대비 순이자비용이 많은 기업, 배당수익률이 높은 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정보통신(IT), 자동차 등 수출주와 저금리 수혜가 예상되는 증권주가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유가증권시장 제조업체 700여 곳의 순이자비용은 올해 4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수치는 2012년 7조3000억원, 2013년 6조원, 지난해 5조원으로 감소해왔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에서도 배당수익률이 은행 금리보다 높은 시기에 지수가 상승세를 탄 것으로 나타났다.

지기호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배당수익률이 금리보다 높은 구간에서 증시는 중장기 강세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NH투자증권, 보험료·렌탈료 지원 NH투자증권은 NH농협손해보험, 동양매직과 제휴해 보험료와 렌탈료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NH농협손해보험 및 동양매직 가입 고객이 NH투자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고 일정 요건 충족시 보험료 및 렌탈료를 지원받는 서비스다. /NH투자증권 제공

거래소, 국채선물 9월물 최종결제 기준채권 지정

한국거래소가 오는 18일부터 거래되는 3년 국채선물 2015년 9월물(KTB3F1509), 5년 국채선물 2015년 9월물(KTB5F1509), 10년 국채선물 2015년 9월물(KTB10F1509)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채권이다.

3년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2000-1712(표면금리 2.000%) ▲국고02750-1706(2.750%) ▲국고02000-2003(2.000%) 등 3종이다.

5년 국채선물 기준채권은 국고02000-2003(2.000%), 국고02750-1909(2.750%) 등 2종이다.

10년 국채선물 기준채권은 3종으로 ▲국고03000-2409(3.000%) ▲국고03500-2403(3.500%) ▲국고02250-2506(2.250%) 등이다.

최종결제 기준채권별 현물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3시 30분을 기준으로 산출해 금투협 홈페이지, 연합인포맥스, 코스콤 체크 단말기 등을 통해 공표한다. /김민지기자

국내 주식형펀드 하루 만에 자금 순유입

국내 주식형 펀드에 하루 만에 자금이 다시 들어왔다.

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 펀드에는 363억원이 순유입됐다.

해외주식형 펀드에는 176억원이 들어와 6거래일 연속 순유입을 지속했다.

단기 자금이 주로 모이는 머니마켓펀드(MMF)에도 1조4574억원이 순유입됐다.

이에 따라 MMF 설정액은 105조6358억원으로 늘어났고, 순자산총액은 106조7101억원으로 집계됐다. /김민지기자

신한금융투자, 법인 자금운용 컨설팅 서비스 시행

신한금융투자의 법인자금운용 컨설팅 서비스가 법인 고객과 증권업계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법인의 자금운용과 관련된 토탈케어를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보유자산 개별분석, 포트폴리오 운용현황 분석, 보유자산 리밸런싱·맞춤 상품제안, 자금운용 담당자 대상교육,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자금운용컨설팅은 현장경험을 거친 베테랑PB 출신인 솔루션파트너와 채권, 자산배분, 주식, 부동산, 세무 등 전문가가 총출동해 각각의 법인에 적합하게 설계된 맞춤형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4월 이후 대학기금, 공제조합, 일반법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법인 자금운용 컨설팅 서비스는 법인 보유 회사채 크레딧 분석, 교체 매매 컨설팅, 자금운용적정성 분석과 신규투자 상품 제안 등의 서비스에 많은 고객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 전담 PB에 의해 자산관리가 이뤄지는 VVIP 고객들과 같이 최상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는 것도 특징이다.

신한금융투자의 법인 자금운용 컨설팅 서비스를 희망하는 법인은 신한PWM과 지점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김민지기자

이재용 시대 스마트카 기술력 어디까지 왔나

삼성전자, 완성차 업계와 '인포테인먼트' 코드 맞추기 돌입



스마트 전기차로 자동차사업 재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 체제가 본격적인 워밍업에 들어간 모양새다. 세계 유수 자동차업계와 연동을 통해 스마트카 기술력을 시험하고 있어서다.

재계에서는 이미 스마트카의 핵심인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체제를 갖춘 삼성그룹이 스마트카 기술을 본격적으로 완성차 업체와 접목하면서 자동차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삼성의 스마트카 기술력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기업 간 거래(B2B) 전시회 '세빗(CeBIT) 2015'에서 갤럭시 S6와 폭스바겐의 중형차 파사트의 IT(정보기술) 시스템을 연결, 운전자가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차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를 시연했다.

삼성이 자동차에 스마트폰 앱 기능 연동에 성공했다면 이미 스마트카의 기술력을 대부분 갖췄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기본적으로 인포테인먼트를 비롯, 통신·방송망을 이용해 자동차 안에서 위치추적, 인터넷 접속, 원격 차량진단, 사고감지 등을 제공하는 텔레매틱스(Telematics) 등을 갖췄느냐에 따라 스마트카 기술력이 평가된다. 이런 단계를 밟아 무인 자율주행카 구현을 목표로 가고 있는 게 스마트카 시장의 추세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고도 기술의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는 삼성은 스마트카의 핵심인 인포테인먼트나 텔레매틱스 관련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삼성 스마트폰의 앱 기능이 연동돼 기존차량에 구현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인포테인먼트 기술을 갖췄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삼성은 이미 스마트카의 플렛폼인 운영체제(OS) 타이젠을 구축했고 이번 박람회에서 인포테인먼트 기술력도 있다는 게 입증됐다"며 "기존 내연기관 차에 비해 부품이 40% 정도밖에 들지 않는 스마트카 사업에 삼성이 반드시 뛰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B3는 전기차 판매량이 2011년 100만대에서 2015년 678만대, 2020년 1000만대 이상으로 연평균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수익성이 기대되는 게 스마트카 시장이라는 것이다.

이에 삼성전자 관계자는 "세빗 박람회에서는 기존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갤럭시S6를 연결해 시연한 일종의 디바이스를 선보였을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송정훈기자 sjh@metroseoul.co.kr

B2B 브랜드 '삼성 비즈니스' 발표

기업용 IoT 솔루션 공개

삼성전자가 유통·의료 등 기업 대상 사물인터넷(IoT) 솔루션을 처음 공개하면서 본격적으로 기업간거래(B2B) 사업 영역 확대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16일(현지시간) 독일 하노버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B2B 전시회 '세빗(CeBIT) 2015'에서 기업 대상 IoT 솔루션을 처음으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세빗은 1986년 시작한 글로벌 B2B 전문 전시행사로 삼성전자, IBM, 인텔, 마이크로소프트(MS), SAP, 화웨이 등 4000여개사가 참여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유통, 교육, 의료, 물류, 호텔, 금융 등 B2B 6대 분야에서 90여개의 솔루션을 선보이면서 분야별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IoT 기술을 도입한 사무환경에서는 사용자가 사무실에 들어오는 순간 자동으로 조명이 켜지고 PC 네트워크와 스마트폰 보안이 활성화되는 모습이 연출됐다.

유통 매장 체험 공간에서는 고객이 제일모직의 패션브랜드 '빈폴'을 집어드는 순간 매장 안에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에 옷에 대한 상세정보가 자동 제공되는 '디지털 유통 솔루션'을 선보였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6로 독일 폴크스바겐 '파사트'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연결하는 등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 솔루션도 시연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활용한 다양한 모바일 헬스 솔루션, 강력한 스마트폰 보안솔루션인 '녹스(KNOX)'를 이용한 B2B 보안 솔루션도 소개됐다.

삼성전자 최고마케팅 책임자(CMO) 홍원표 사장은 기조연설에서 "기업 분야에 IoT를 적용하면 생산성·수익성 뿐만 아니라 고객가치 역시 대폭 높일 수 있다"면서 "IoT 확산을 위해서는 플랫폼 간 호환성 확보, 급증하는 데이터 분석, 보안 등 세 가지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B2B 브랜드 'SAMSUNG BUSINESS'를 처음 공개했다. /양성운기자



16일(현지시각)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세계최대 B2B 전시회 CeBIT2015에서 홍원표 삼성전자 사장(사진 앞줄 왼쪽 첫 번째)과 시그마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사진 앞줄 왼쪽 두 번째)가 삼성전자 전시 부스를 돌아보고 있다.

LG전자 올레드 TV 해외 호평 이어져

"올레드 마법의 승리!"



LG전자의 프리미엄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에 대한 외신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LG전자에 따르면 미국 유력매체 디지털 트렌드는 최근 울트라HD(UHD) TV 평가에서 LG 울트라올레드 TV(65EC9700)를 최고 제품(The Best)에 선정했다.

이 매체는 "LG 울트라 올레드보다 더 나은 울트라HD 기술은 없다"면서 완벽한 블랙 구현, 균일한 밝기, 말끔한 색감, 세련된 디자인 등을 강점으로 꼽았다.

미국 IT(정보기술) 전문매체 피시맥(PCMag)은 65인치형 울트라 올레드 TV(65EC9700)에 대해 "틀림없는 최고의 화질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테스트한 TV 중 최고"라며 5점 만점에 4.5점을 부여했다.

지난해부터 피씨맥이 테스트한 전 세계 TV 95대 가운데 최고점수다.

미국 유력 매체 톰스 가이드(Tom's Guide)도 55인치형 LG 올레드 TV(55EC9300)에 5점 만점을 부여하면서 "구매할 수 있는 최고의 TV"라고 평가했다.

영국의 스터프(Stuff)는 55인치형 올레드 TV(55EC930V)가 "지금 구매할 수 있는 가장 멋진 TV"라며 5점 만점을 줬다.

프랑스 유력매체 01넷(01net.com)은 65인치형 LG 울트라 올레드TV(65EC970V)에 대해 "올레드 기술 덕분에 마법 같은 화면을 보여준다. 올레드 마법의 승리"라고 표현했다.

이인규 TV/모니터 사업부장 전무는 "세계에서 인정받은 올레드의 압도적인 화질과 쉽고 직관적인 사용성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TV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성운기자 ysw@

동부대우전자 '클라쎄 양문형냉장고' 가격 할인·이벤트



동부대우전자가 본격적인 혼수·이사철을 맞아 온라인 쇼핑몰 공략에 나섰다.

동부대우전자는 11번가, 티켓몬스터, 위메프 등 온라인 쇼핑몰들과 협력해 가격 할인, 이벤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새로운 가전 유통채널로 부각되고 있는 온라인 마켓과의 제휴를 더욱 강화해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판매 유통채널을 더욱 다양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동부대우전자는 이날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11번가 동부대우전자 특별관'을 통해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800ℓ대 클라쎄 양문형냉장고(FR-T89PRNS)를 110대 수량 한정으로 110만원에 판매한다. 기존 판매기 보다 30% 파격적인 가격으로 할인한 온라인 전용 모델이다. 구매 후 사진후기를 남기는 고객을 대상으로 11만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도 함께 펼친다.

이번 클라쎄 양문형냉장고 신제품(FR-T89PRNS)은 832ℓ 용량이다. 동급 최대 360㎜ 와이드 냉동실과 이슬촉촉 야채실을 이용한 다양한 수납이 가능하다. 실버 컬러와 강화유리를 채용한 도어와 시크릿 디스플레이, LED 고내등을 채용하여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연출했다.

도어 전면 디스플레이에 적용된 3색 에코모드는 사용 시 문을 많이 여닫아 에너지 소비가 많아질 경우 녹색→청색→적색으로 색상이 자동 변경되어 사용자의 에너지 소비 정도를 쉽게 알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동부대우전자는 또한 국내 소셜커머스의 대표 주자인 티켓몬스터와 위메프 내 브랜드관을 열고, 혼수 필수가전에 대한 할인 행사를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양성운기자

소형 SUV 시장 '돌풍의 핵' 올·뉴·투·싼

사전계약 4000대 돌파… 티구안과 승부 자신감

티볼리를 제칠 수 있을까?

쌍용자동차의 소형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티볼리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의 SUV 투싼이 6년만에 새 모습으로 등장했다. '올 뉴 투싼'이다.

시장의 관심도 뜨겁다. 나흘 만에 사전계약 판매는 4000대를 돌파했다.

현대자동차는 17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더 케이 호텔에서 현대차 관계자와 기자단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뉴 투싼을 공개했다.

곽진 현대차 부사장은 이날 신차 발표회를 통해 "올해도 저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리의 판매전략은 결국 '품질력 강화'"였다며 투싼의 역량에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 곽 부사장은 올 뉴 투싼이 "고성능·고연비·친환경 트렌드에 맞춰 전세계 SUV 시장에 새로운 돌풍을 몰고 올 혁신적인 제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차의 3세대 SUV 올 뉴 투싼에는 유로 6 기준을 달성한 ▲R2.0 디젤 엔진 외에도 다운사이징 엔진인 ▲U2 1.7 디젤 엔진을 추가해 총 2가지 엔진이 탑재된다.



현대자동차는 17일 3세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올 뉴 투싼'을 공개했다. / 현대자동차 제공

김상배 현대차 이사는 "R2.0 형의 경우 폭스바겐의 티구안을 경쟁모델로 생각하고 있다"며 "티구안에 비교해도 상품성과 기본성능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 뉴 투싼의 R2.0 디젤 모델은 ▲스타일 2420만원 ▲모던 2655만원 ▲프리미엄 2920만원으로 출고됐다. 티구안의 가격이 3840만~4830만원인데 비하면 가격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셈이다.

U2 1.7엔진 모델에는 두 개의 클러치가 번갈아 작동해 빠른 변속 반응 속도와 연비 효율을 높인 7단 듀얼 클러치가 장착됐다.

김 이사는 이어 "안전에 있어서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충돌안전, 동력성능, 승차감과 핸들링, 소음과 진동, 내구성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타깃층은 한층 넓어졌다. '젊은' 그리고 '여성'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했다.

특히 젊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한 '피버 패키지'는 내장 디자인을 아라블루, 세도나 오렌지 등 다채로운 색으로 구성했다. 여성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드라이빙 스쿨'도 연다.

김 이사는 "이 밖에도 자동차를 쇼핑몰 등에 전시하거나 카 쉐어링 용으로 제공하는 등 젊은 구매층들의 접촉 기회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블루링크 LTE 최초 탑재'를 기념해 4월 30일까지 '올 뉴 투싼'을 구매하는 고객(사전계약자 포함) 중 블루링크 2.0이 적용된 8인치 내비게이션을 선택한 고객 총 500명을 추첨해 블루링크 평생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1000명에게는 KT 뮤직의 지니 어플을 통한 1년 무료 음악감상 혜택을 제공한다.

'올 뉴 투싼'의 판매가격은 U2 1.7 디젤 모델이 ▲스타일 2340만원 ▲모던 2550만원이며(2WD, 7단 DCT 기준), R2.0 디젤 모델은 ▲스타일 2420만원 ▲모던 2655만원 ▲프리미엄 2920만원 (2WD, 자동변속기 기준)이다.

/양소리기자 10sound@metroseoul.co.kr

한국타이어, 13년 연속 브랜드파워 1위

한국타이어(대표이사 서승화)가 10년 이상 연속 1위를 차지한 브랜드에게 주는 '골든 브랜드'에 선정되는 영예를 차지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 '2015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승용차타이어 부문에서 13년 연속 1위에 오르며 글로벌 선도 타이어 기업임을 입증했다. 또한 '한국타이어 티스테이션(T'Station)'은 타이어 전문점 부문에서 7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1만10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한국타이어는 브랜드 인지도와 충성도를 종합한 브랜드파워에서 경쟁사에 압도적 격차를 보였다. 특히 구입가능성, 선호도 등이 반영된 브랜드 충성도는 K-BPI 1위 브랜드 중에서도 최상위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그간 한국타이어가 글로벌 Top Tier 수준의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전달해 온 결과로 보인다.

한국타이어는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등 독일 3대 명차를 포함한 전 세계 25개 완성차 브랜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극한의 상황에서 발휘되는 타이어 성능을 강조한 'It is' 광고 캠페인과 '더 넥스트 드라이빙 랩' (The Next Driving Lab, TNDL) 캠페인을 통해 한국타이어가 지향하는 혁신적인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김종훈기자 fun@

에어부산, 일본 오사카 노선 증편운항

에어부산(대표 한태근)은 29일부터 부산-일본 오사카 노선 운항편수를 현재 매일 왕복 2회에서 승객의 선호가 많은 요일(월·목·금·일)에 왕복 1회씩 증편 운항한다.

지난해 10월 부산-후쿠오카 노선을 기존 매일 왕복 2회에서 3회로 증편한 에어부산은 부산-오사카 역시 동남권 승객의 항공편의 증진을 위해 증편에 나선다고 전했다.

해당 노선은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월·목·금·일 오전 11시 15분 출발하고, 일본 간사이국제공항에서 오후 1시 30분 출발하는 일정이다.

비행시간은 1시간 20분이다.

증편 기념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된다. /이정필기자 roman@

"이제 백령도에서도 전화통화 안 끊겨요"

KT '기가 아일랜드' 선포

"이제 전화통화가 끊기지 않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17일 오전 10시 인천 옹진군 백령도 면사무소에서 KT와 인천시가 주관한 '백령 기가 아일랜드' 행사 현장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오성목 KT네트워크부문장, 조윤길 옹진군수, 백령도 주민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해 개선된 통신환경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백령도가 서해 최북단에 위치해 다른 지역보다 안보가 불안한 만큼 전화통화와 인터넷 품질을 높인다는 취지는 주민들의 기대를 끌어내기에 충분했다. KT로선 이번 행사가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도와 경기도 파주시 대성동에 이어 주최하는 세번째 기가 아일랜드 행사다.

일단 KT는 광대역 LTE-A와 기가인터넷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가 마이크로웨이브' 장비를 백령도에 구축했다. 이 장비는 기존 방식보다 5배 향상된 전송 용량으로 최대 1Gbps 속도 제공이 가능하다.

아울러 KT는 '4 안테나 기술'을 서해 5도(백령도·연평도·대청도·소청도·우도)에 적용했다. 기존의 백령도 내 송전탑을 두배 높이로 올리고 안테나를 4대로 확대해 최대 120Km까지 전화통화와 데이터 송수신을 끊김 없이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백령도 인근 해안에서 벗어난 어선에서도 전화 통화나 인터넷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7일 KT가 운동정보, 심박수 등 건강 정보를 관리하는 '헬스케어 스마트워치'를 백령도 주민들에게 보급했다. /KT 제공

KT는 재난과 재해 등 비상 상황 시 백령도의 각 대피소와 육지 간 원활한 통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무전 단말기인 '라져원' 26대를 각 대피소에 비치했다.

이 밖에도 KT는 백령도 주민들에 대한 보안과 건강관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 CCTV'와 '헬스케어 스마트워치' 등을 지원했다.

백령도에 10대가 보급된 스마트 CCTV는 HD(고화질)급 카메라로 포구에 정박한 선박의 상태를 선명하게 촬영해 어민들에게 PC나 스마트폰으로 확인해 주는 시스템이다. KT는 옹진군과 협의해 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백령도 어민 김진수(56)씨는 "폭우가 심하게 몰아치는 날이면 항구에 묶어둔 배 걱정에 잠을 설친다"며 "하지만 스마트 CCTV로 배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또 KT는 헬스케어 스마트워치 100대를 지역 내 노인에 배포해 운동정보, 심박수 등 건강 정보 관리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상 징후 감지 시 실시간으로 가족과 의료 기관에 정보를 전송한다. 소변으로 간단히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당뇨 검진 솔루션 '요닥 서비스'를 도입, 단말기 5대를 기부했다.

오성목 KT네트워크부문장은 "프로젝트 지역에 설치되는 서비스들은 위성LTE 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들"이라며 "이러한 기술 상용화를 개발함으로써 다른 분야 상용 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궁극적으로는 KT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선준기자 rsunjun@

'밑빠진 독' 성진지오텍

위기의 포스코… 계열사 경영실적 살펴보니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의혹에서 야기된 검찰 수사가 그룹 전계열사로 번지고 있다.

17일 검찰은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포스코건설 협력사 3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망을 넓혔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 외에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계열사로는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텍)이 대표적이다.

경영실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2009~2013년 재임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밀어붙이면서 부실기업 고가인수 의혹을 받는 곳이다.

정 전 회장 취임 1년 뒤인 2010년 3월 포스코는 부실기업이던 성진지오텍을 1600억원에 사들였다.

당시 성진지오텍은 당기순손실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었다.

차입금의존도는 46%에 달했고 부채비율은 1613%를 넘었다.

2009년 26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성진지오텍은 2013년 63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이런 와중에 포스코는 알짜배기 계열사인 포스코플랜텍과 성진지오텍의 흡수합병을 단행하며 회사를 살리기 위해 4차례에 걸쳐 49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포스코플랜텍은 지난해 영업손실 1890억원과 당기순손실 2797억원을 기록하며 포스코 계열사 중 가장 큰 손실 규모를 차지했다.

부채비율이 500%에 달하는 나인디지트와 자본잠식 상태였던 리코금속을 사들인 포스코엠텍 역시 부실 계열사 인수 논란이 일고 있다.

나인디지트와 리코금속은 정 전 회장 재임 당시 도시광산사업을 개척할 목적으로 인수됐다.

탈세 의혹을 받는 포스코피앤에스(P&S)는 실제 거래가 없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2013년 포스코P&S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뒤 1300억원 규모의 조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09년 8조5000억원 규모였던 포스코의 현금성자산은 지난해 6조2000억원으로 20% 이상 감소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영포라인이라 불리는 MB 측근 실세들이 정 전 회장을 임명했고, 그의 임기 동안 포스코가 망가졌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포스코의 경영문제를 지적해온 김 교수는 "2009년 3월 당시 포스코는 세계 1위 기업이었다"며 "정 회장의 5년 동안 영업이익률이 17%에서 4%대로, 부채는 9조원에서 14조원으로, 부채비율은 50%에서 80%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진지오텍은 부도직전이었다. 나인디지트와 리코금속은 완전히 부실상태였다"며 "쓸데없는 M&A가 현재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포스코 건설의 비자금 조성을 도와준 혐의로 흥우산업 등 계열사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베트남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필기자 roman@metroseoul.co.kr

동부그룹 비자금의혹 불거져

대기업 사정 확대되나



포스코건설에 이어 동부그룹의 비자금조성 의혹이 불거져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17일 재계·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동부그룹 주변에서 포착된 수상한 금융거래 정황을 살펴보고 있다.

해당 첩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확인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계류됐다.

검찰은 김준기(사진) 동부그룹 회장 주변의 의심거래보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이 회삿돈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자녀들에게 건넸다는 의혹이다.

지난해 금융조세조사2부에 접수된 동부그룹 첩보는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재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신설된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기업비리 수사에 중점을 두고 사실상 특수부 역할을 맡은 곳이다.

이에 포스코 수사로 시작한 대기업 사정정국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업계 안팎으로 나오고 있다.

/이정필기자 roman@

대우조선해양 4개월째 글로벌 1위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가 단일 조선소 수주잔량 기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누르고 글로벌 1위 자리를 지켰다.

지난해 11월말부터 4개월째 선두 수성이다.

17일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는 수주잔량 795만7000CGT(수정환산톤수), 125척으로 업계 1위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502만6000CGT, 100척으로 2위를 차지했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는 486만6000CGT, 83척으로 그 뒤를 이었다.

현대미포조선 울산조선소는 343만9000CGT(153척), 현대삼호중공업 삼호조선소는 341만8000CGT(78척)로 각각 4위와 5위에 자리했다.

6~8위는 중국 조선소가 이름을 올렸다.

성동해양조선 통영조선소는 198만7000CGT, 75척으로 9위를 기록했다.

미포조선과 삼호중공업을 합친 현대중공업그룹의 글로벌 1위는 여전히 압도적이다.

그러나 단일 조선소를 기준으로 대우조선이 선두를 달린 것은 연속 4개월째다.

이 같은 원동력은 지난해 거둔 수주성과 덕분으로 풀이된다.

저유가 현상과 오일 메이저들의 투자 축소 등으로 인한 불황 속에서 대우조선해양은 창사 이래 두 번째로 높은 149억 달러(수주목표액 145억 달러)를 수주했다.

역대 최대 기록은 2007년 기록한 215억 달러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은 상선 중심의 수주전략을 구사해 액화천연가스(LNG)선 35척을 비롯해 12월 한 달에만 46억 달러를 수주한 바 있다.

/이정필기자



대우조선해양의 해양플랜트 설치선인 '피터 쉘터(Pieter Schelte)' 호의 시운전 모습.

/대우조선 제공



SK텔레콤과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17일 듀얼어퍼처인터내셔널에 대한 지분투자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 (왼쪽부터) 경종민 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박명순 SKT 미래기술원장, 이대범 Dual Aperture International 대표, 임종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장호양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본부장.

/SK텔레콤 제공

SKT, '3D이미징 원천기술' 보유 벤처기업에 지분투자

SK텔레콤은 3D 이미징 원천기술을 보유한 대전 소재 벤처기업 듀얼어퍼처인터내셔널(DAI)과 지분 투자와 전략적 제휴 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SK그룹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와 별도로 DAI와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DAI는 미래창조과학부 스마트 IT 융합시스템 연구단(CISS)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합작법인이다. 이번 SK텔레콤과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으로 '3각 지원'을 받게 됐다.

DAI는 3D 거리 정보를 측정하는 데 4컬러 센서를 사용한 이중 조리개 기술을 적용해 필요한 센서를 2개에서 1개로 줄여 원가 절감을 실현했다. 이 기술은 동작인식과 무인자동차 등 향후 적용 분야가 무궁무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회사의 최고경영자인 이대범 박사는 HDMI 영상 인터페이스 표준화를 주도한 '실리콘 이미지'를 창업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는 등 영상 분야의 대부로 통한다.

SK텔레콤은 이번 지분투자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자사가 개발 중인 지능형 카메라에 DAI의 3D 이미지 추출·향상 기술을 적용해 보안과 BI(Business Intelligence)관련 신제품을 개발하는 한편 새로운 응용 분야를 개척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전센터는 DAI의 원천기술을 세계시장 공략에 적합한 새로운 3D 이미징 응용 기술로 발전시키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

박명순 SK텔레콤 미래기술원장은 "유망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과의 기술 협력 기회를 지속 발굴하고 강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창조경제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하 기자 happyyjh@



빕스, 18주년 한정판 메뉴 '1997 스테이크' 출시 스테이크 하우스 빕스(VIPS)가 오픈 18주년을 기념해 한정판 메뉴인 '1997 스테이크'를 선보이고 18일부터 25일까지 9970원에 판매한다. 3월 6일부터 진행 중인 샐러드 바 1997원 행사에 이은 두 번째 고객 감사 이벤트로, 샐러드 바 이용 고객에게 제공한다.

검찰, 부정부패 신세계 정조준

70억 규모 현금 이명희·정용진 총수 일가 계좌 입금 파악

검찰이 신세계그룹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차원의 수사로 대기업 사정정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검찰 수사는 신세계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검찰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신세계 이명희 회장과 정용진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계좌 추적에 착수했다.

신세계는 그룹 계열사 당좌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를 물품거래에 정상적으로 쓰지 않고 현금화한 정황이 포착됐다.

첩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확인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에 계류돼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살펴보는 부분은 신세계의 법인 당좌계좌에서 발행된 당좌수표가 물품 거래에 쓰이지 않고 현금화된 경위다. 현금화된 돈 가운데 일부가 이명희(73·**사진 왼쪽**)회장과 정용진(48·**오른쪽**)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대주주가 법인 재산을 임의로 꺼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검찰 수사의 초점이다.

올해초 일단락됐던 신세계그룹의 비자금 의혹이 또다시 불거진 셈이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신세계 내부에서 거액의 수상한 뭉칫돈이 움직인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벌였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신세계의 비정상적 거래 행위를 포착하고 검찰에 의심거래보고(STR) 자료를 넘긴 바 있다.

업계에선 포스코를 시작으로 한 대기업 사정정국이 확대되며 이번 수사가 단순 조사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찰 측은 "계좌를 보고 있지만 특별한 의미는 없다. 여러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지만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한 자금흐름을 계속 파악하고 있어 정식 수사 착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거래내역을 본격 추적하고 나설 경우 특별수사의 특성상 뜻밖의 '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

신세계 측은 경조사비나 격려금 등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부분의 지출을 위해 대략 70억 원 규모의 현금을 만든 것으로 비자금과는 무관한 정상적인 비용 처리라는 입장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올해 1월 관련 사안을 검찰에 해명했다. 일단락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시 조사가 착수된다니 다소 당황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metroseoul.co.kr

"주문하면 2시간 내 배송"

김범석 쿠팡 대표 "아마존 한국 진출 두렵지 않다"

소셜커머스 기업 쿠팡이 생필품을 2시간 안에 배송하는 서비스를 상반기에 시작한다.

김범석(38·**사진**) 쿠팡 대표는 17일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저귀, 생활용품 등 주부 고객들이 급하게 필요한 상품들을 주문 후 2시간 안에 받아볼 수 있는 배송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필품 2시간내 배송 서비스는 상반기 중 우선 경기도 일산 지역에서 시범 서비스 형태로 시작될 예정이다.

쿠팡 측은 물품을 직접매입하고 전국 단위의 물류 인프라를 갖춘 후, IT기술 기반의 물류 관리 시스템을 통해 배송 전담직원이 배송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같은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경기·인천·대구 등 7개 물류센터를 운용 중이다. 또 쿠팡맨 1000여명을 채용해 이커머스 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직매입 제품에 한해 상품을 직접 배송하고 있다. 오는 2016년까지 전국 단위 9~10개로 물류센터를 확충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초 직접배송 서비스 도입 당시, 업계 전반에서 무모한 투자라며 우려가 많았지만 해당 투자를 통해 구축한 직접 배송서비스가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쿠팡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식약처 "임산부 참치통조림 일주일 400g 먹어도 돼"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임산부의 참치캔 섭취 문제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주일에 400g까지는 먹어도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전국 보건소와 산후조리원 등에 보낸 '임신 여성의 생선 안전섭취요령' 책자에서 "임신 기간 일주일에 일반어류와 참치통조림만 섭취할 경우엔 400g 이하가 적당하다"고 밝혔다.

일반어류군으로는 고등어, 명태, 광어, 꽁치, 조기, 갈치, 삼치, 전어, 참치통조림, 생선조림 등으로 예시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참다랑어, 날개다랑어 등 다랑어류, 새치류, 심해성 어류만을 섭취할 경우에는 이보다 적은 일주일에 100g 이하가 적당하다고 명시했다.다만 식약처는 다양한 생선을 함께 섭취할 경우에는 각각 함유된 메틸수은 함량을 근거로 일주일 동안의 메틸수은 함량의 합계를 내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또 어떤 주에 권장량을 초과해 섭취했다면 그다음 주에는 초과한 분 만큼 덜 섭취하라고 조언했다.



'맥심 카누' 신규 TV 광고 '카누 레시피' 온에어 동서식품(대표 이광복)이 맥심 카누(KANU)의 신규 TV 광고 '카누 레시피' 편을 선보였다. 이번 광고는 화사한 봄기운이 도는 가운데 바리스타로 변신한 공유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누 카페에서 메뉴판을 쓰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현대홈쇼핑, 협력사에 상품개발기금 전달

현대홈쇼핑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 사옥에서 '민·관 공동 R&D펀드 상품개발기금 전달식'을 갖고, 상품개발 능력이 탁월한 중소 협력사 6곳을 선정해 총 8억8200만원의 상품개발기금을 무상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

상품개발기금은 지난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와 협약한 민·관 공동투자 R&D를 통해 현대홈쇼핑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각각 4억4100만원씩 함께 지원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썬라이즈·네오플램·코리아락·썸덱스월·위너비엠·유닉유니온 등 총 6곳이다.

강찬석 대표는 "협력사들은 신상품 개발에 나서서 좋고, 현대홈쇼핑은 우수 상품을 선보일 수 있어 상호 윈-윈"이라고 말했다.

락앤락, 안성 창고 80%할인

락앤락은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안성 물류센터에서 '안성 창고대개방' 행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사는 매년 봄·가을 진행되는 락앤락의 정기 행사로 총 17만㎡(약 5만평)에 달하는 안성 물류센터를 소비자들에게 개방해 총 4000여 개에 달하는 품목을 최고 80%까지 할인한다.

쌍춘년 봄을 맞아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예비 신부의 필수 혼수품인 '비스프리' '락앤락 오븐글라스' 등 소재별밀폐용기부터양념통·키친툴 그리고 심플한 디자인에 실용성을 높인 '하드앤라이트 후라이팬' 등 쿡웨어까지 다양한 주방용품이 준비됐다. 수납용품, '레인보우' 피크닉 용품, 보온·보냉병, 비스프리 물병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한다.



롯데리아, 글로벌원정대 모집

롯데리아(대표 노일식)가 올해로 5년째 운영하고 있는 대학생 마케터 프로그램인 '글로벌 원정대 5기'를 18일부터 4월 1일까지 모집한다.

전국 2년재 대학생 대상으로 2인 또는 3인 1팀을 구성해 지원이 가능하며 롯데리아 글로벌원정대 공식 홈페이지(www.globallotteria.com)를 통한 지원 동기와 지원 팀별 SNS 미션 수행 후 지원이 가능하다.



우리의 혁명은 숲에서 시작된다
3/18 2PM. FINAL TICKET OPEN
DAS MUSICAL
ROBIN HOOD
로빈훗
2015.4.18-5.25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프로듀서 김선미 연출 왕용범 음악감독 이성준 안무 서병구 조명디자인 민경수 무대디자인 서숙진 음향디자인 권도경 영상디자인 송승규 의상디자인 한정임 분장디자인 양희선 소품디자인 김상희 무술감독 유병은 기술감독 이유원 제작감독 김완식
출연_ 유준상 서영주 이건명 홍경수 엄기준 조순창 박진우 박성환 규현 서지영 김아선 김여진 다나 외
투자 하나투어 제작 제작지원 KIBO 예매 INTERPARK 티켓 1544-1555 YES24.COM 1544-6399 하나 Free 티켓 1566-6668 문의 02-764-7857-8 CLIP service 1577-3363 홍보
Music: MARTIN DOEPKE Book: ANDREA FRIEDRICHS & HANS HOLZBECHER Lyrics: ELKE SCHLIMBACH & GRANT STEVENS Orchestrations: HUMMIE MANN & MARTIN DOEPKE
Producer Original Production: ANDREA FRIEDRICHS Worldwide General Management: WILLEM METZ MANAGEMENT
WMM

"여성친화 기업문화, 경단여성에게 기회"

수요일은 가족사랑의날

연중기획 가정이 있는 직장

④ 맥도날드

i'm lovin' it®



지난 2013년 10월 10일 열린 맥도날드의 제 2회 '주부채용의 날' 행사에 참여한 주부들이 면접에 임하고 있다. /한국 맥도날드 제공

업계 첫 '주부 채용의 날' 도입…"평범한 주부서 바리스타 변신"

9년 동안 육아에만 전념해왔던 유혜은 바리스타(35)는 지난 2013년 10월 '주부 채용의 날'을 통해 한국맥도날드 시간제 매장 직원인 크루로 입사했다. 현재 등촌 DT점의 맥카페 바리스타로 근무 중으로 지난해 열린 '맥도날드맥카페 바리스타 올림픽' 에서 라떼아트 부문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녀는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는 틈틈이 커피를 공부하며 바리스타로서 꿈을 키워왔지만 자격증까지는 취득하지 못했다. 그런 그녀의 가능성과 노력을 알아봐준 곳은 바로 맥도날드였다.

한국맥도날드는 지난 2013년 업계 최초로 '주부 채용의 날'을 개최해 경력이 단절된 워킹맘들에게 재취업과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만8000여 명의 전 직원 중 여성 직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다. 유 바리스타와 같은 주부 크루는 1700여 명 정도다. 맥도날드는 특히 유연한 근무 시간과 맞춤형 복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 유 바리스타 역시 맥도날드에서 일하면서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로 이를 꼽았다.

맥도날드는 또한 주부 크루들이 본인에게 알맞은 근무 시간을 선택해 일과 가사,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유연한 근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 바리스타는 "아이들에게 손도 많이 갈 시기라 다시 일을 시작하기 쉽지 않았지만 맥도날드에서는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었기에 부담 없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며 "아이들이 자라면 근무 시간을 조금씩 더 늘려 더욱 전문적으로 바리스타 일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맥도날드는 여성 직원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면서 여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선도하고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해 여성직원들이 경력단절에 대한 고민없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직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내 여성 직원 지원 프로그램인 '한국 여성 리더십 네트워크'(KWLN)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여성 직원들이 조직 내에서 최상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6일에는 올해로 107회째를 맞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친화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기업 문화를 장려하는 임직원 행사를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 행사를 통해 맥도날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기업 문화를 알리고, 한국맥도날드를 비롯해 아시아 전역 맥도날드의 기업 문화를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국맥도날드는 이러한 노력을 인정 받아 지난 2월 세계 최대 규모의 인사조직 컨설팅사인 에이온휴잇이 주관하는 '2015 한국 최고의 직장'에 선정됨과 동시에 '여성이 선택한 최고의 직장'에 뽑혔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GWP(Great Work Place)코리아가 선정한 '2014 대한민국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KWLN의 회장을 맡고 있는 조주연 부사장은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을 통해 여성의 업무 역량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시니어·장애인 등 보다 폭 넓은 다양성을 장려하는 것은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믿는다"며 "앞으로도 맥도날드는 성별·나이·학력·장애 등에 차별 없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기업 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한국 맥도날드 여성친화 기업문화

- 업계 첫 '주부채용의 날' 도입(2013년)
- 유연근무제 시행
- '한국 여성 리더십 네트워크' 활용
- 나이·성별·학력·장애 등에 차별 없는 '열린 채용'
- 모든 직원에 동등한 교육 제공 및 지원

공동기획 : 여성가족부 metro

차별 두지 않는 '열린 채용' 실천

한국맥도날드는 '햄버거를 서빙하는 사람들의 회사'라는 맥도날드 창업자인 레이 크 록이 밝힌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나이·성별·학력·장애 등에 차별을 두지 않는 '열린 채용'을 실천하고 있다.

이 같은 채용 문화가 자리잡아 현재 한국맥도날드에서 근무 중인 매장매니저의 70% 이상, 본사 근무직원의 50% 이상이 매장에서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또 글로벌 CEO 6명 가운데 절반은 크루(매장 직원) 출신이며 시간제 크루·매장 매니저·본사 임직원 등 각 역할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세분화해 내부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한국맥도날드는 인사시스템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채용의 날' '주부채용의 날'등과 같은 채용행사를 개최, 주부·실버세대·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시간제 매장 근무직원인 크루와 라이더를 모집해 고용 창출에 힘쓰고 있다.

또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맞춤형 복지 혜택을 통해 여성 직원들은 물론이고 장애인이나 시니어 등 더욱 넓은 범위의 직원 다양성을 포용하고 장려해 나가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크루부터 본사 임직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직원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진다. 크루에게는 매장 관리직인 매니저와 점장을 거쳐 지역 관리자나 본사의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열려 있다.

크루에게는 자기 계발을 위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같은 지원은 주부 크루에게는 일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외국어 학습을 원할 경우 학원 수강비를 10% 할인해주고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은 무료로 이용할 있다. 또 산학협력 프로그램 일환으로 서울·경희·한양·세종 사이버 대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 시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달 6일 한국 맥도날드 본사에서 열린 '세계여성의날' 기념 임직원 행사에서 조 엘린저 한국 맥도날드 대표이사(사진 두번째 줄 왼쪽에서 일곱번째)와 조주연 KWLN 회장(사진 두번째 줄 왼쪽에서 여섯번째)이 KWLN 멤버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한국 맥도날드 제공

한국맥도날드 조 엘린저 대표이사는 "맥도날드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이며 맥도날드에서 근무하는 1만8000여 명의 최고의 직원들이 오늘날 맥도날드를 최고의 직장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직원 교육 및 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맥도날드를 더 좋은 직장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수정기자

잇몸 건강 평소 관리가 중요

양치질 철저… 정기적인 검진도 도움



건강한 잇몸은 30대가 지나면서 점차 생명력을 잃고 40~50대에 이르면 80~90%의 사람들이 한 가지 이상의 잇몸질환에 시달린다. 따라서 건강한 잇몸을 위해서는 평소 치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잇몸 건강을 위해서는 우선 잠을 충분히 자야 한다. 수면 부족은 인체의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구강 내 각종 세포의 기능을 억제한다. 이런 현상이 이어지면 염증이 생겨 잇몸질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기존 질환의 진행속도를 빠르게 한다.

또 늦은 저녁의 음주나 흡연도 잇몸 건강에는 치명적이다. 많은 직장인들이 일과 후 술을 마시며 근심을 털어내지만 과음할 경우에는 혈압이 상승하면서 잇몸이 붓고 잇몸출혈이 생길 수 있다. 와인이나 맥주와 같이 비교적 도수가 낮은 술도 다량의 당분을 함유하고 있어 충치를 유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우는 담배도 문제다. 니코틴과 타르 등 담배의 유해성분이 입 속 말초신경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막고 이로 인해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차단돼 잇몸이 약해진다. 약화된 잇몸은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이어진다.

아울러 잇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잇몸 건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양치질을 철저히 해야 한다. 양치질만 잘해도 세균성 치태와 치석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잇몸질환이 있다면 바스(bass)법을 이용해보는 것도 좋다. 바스법은 칫솔모의 끝을 이용해 양치질을 하는 것으로 칫솔모의 끝을 치아와 잇몸이 닿는 부위에 45도 방향으로 밀착해 약 10초간 앞뒤 방향으로 진동을 준 뒤 옆으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이와 잇몸 사이에 낀 프라그 제거는 물론 잇몸 마사지 효과도 볼 수 있다.

허영준 다인치과병원 원장은 "잇몸 건강이 나빠지는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6개월에 한 번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는 것도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미생지킴! 마데코밤!' 이벤트

동국제약, 직장인 입술 보호 위한 사연 접수

동국제약(대표이사 이영욱)은 직장인의 입술 보호를 위해 최근 실시한 '오피스 어택! 미생지킴, 마데코밤' 이벤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벤트는 '건조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입술을 건강하고 촉촉하게 되돌리자'는 주제로 마련됐다. 또 동국제약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마데카솔' 브랜드사이트에서 직장인들에게 마데코밤을 알리는 동시에 입술 보호를 위한 사연을 접수했다.

이벤트는 YBM시사 등 일반기업체는 물론 도서관, 병원, 대학교 등 다양한 분야의 직장인들이 참여했다. 회사는 그중 총 100팀을 선정해 마데코밤을 무상으로 증정할 예정이다.

마데코밤은 상처 치료제 마데카솔의 주성분이자 화장품 재생라인에 사용되는 '센텔라 정량추출물'을 성분으로 하는 입술보호제다.

/황재용기자

강강술래, 환절기 보양식 할인

길벗 추천도서 증정 홈페이지 이벤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환절기를 맞아 고객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보양식 할인과 덤 증정 행사를 벌인다.

이달 말까지 전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sullaimall.com)·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육개장선물세트(500㎖·7팩·14인분)와 갈비탕선물세트(500㎖·7팩·14인분)를 각각 30% 할인 판매하고, 구매 시 한우사골곰탕(350㎖·2팩)을 덤으로 준다.

같은 기간 홈페이지 고객마당·경품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더늙어 보이는 여자 더어려 보이는 여자' '부동산상식사전' 등 길벗의 추천도서도 증정한다.

/김수정기자 ksj0215@



이대목동병원 간호부원장에 변은경 서남병원 간호부장 임명



이대목동병원이 17일 변은경(사진) 서울시 서남병원 간호부장을 간호부원장으로 임명했다.

변 부원장은 1983년 이화여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이대동대문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로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 수간호사와 병동간호과장 등을 역임했다.

변 부원장은 "간호사 교육을 위해 재직 간호사를 위한 전문 교육과정과 신규 간호사에게 맞는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해 개개인의 능력 개발과 역량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곤지암 화담숲 21일 오픈

봄 맞아 새단장…26일까지 입장료 50% 할인



경기도 광주의 곤지암 화담(和談)숲이 수목과 동물 보호를 위한 동계 휴장기간을 마치고 21일 오픈한다.

화담숲은 LG상록재단이 사회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설립·운영하는 생태 수목원으로 곤지암리조트 내 17개의 테마원으로 조성돼 있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이끼원을 비롯해 반딧불이원과 자작나무 숲 등이 인기가 높다. 또 올해는 분홍빛 진달래와 철쭉 210여 종 7만 그루가 군락을 이뤄 봄의 정취를 더하고 5㎞에 이르는 숲 속 산책길과 테마원 산책로도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다.

화담숲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곤지암리조트 숙박 이용 고객에게는 단체요금이 적용되며, 오픈 후 26일까지는 화담숲 입장료가 50% 할인된다. /황재용기자

영국항공 세계 최고 공항터미널 선정

영국항공은 '터미널 5'가 프랑스 파리 여객 운송 박람회장에서 열린 '2015 스카이트랙스 어워드(Skytrax Award)'에서 '세계 최고의 공항 터미널(World's Best Airport Terminal)'로 선정돼 4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고 17일 밝혔다.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에 위치한 터미널 5는 영국항공과 이베리아항공의 승객만이 독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다. 또 쇼핑시설과 레스토랑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력셔리한 6개의 라운지로도 명성이 높다.

에드워드 포더링험(Edward Fotheringham) 영국항공 한국지사장은 "이번 스카이트랙스 어워드에서 최고의 공항 터미널로 선정된 터미널 5와 최고의 환승 공항으로 선정된 인천공항을 잇는 유일한 항공사로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일체형 갤럭시S6 충전속도 느리다"

해외 IT매체 지적…국내 소비자 반응 '시큰둥'

'이재용폰'으로 불리며 전 세계 관심을 집중시켰던 삼성전자 갤럭시S6가 당초 기대일색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1일 삼성전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컨벤션센터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 2015' 행사를 열고 갤럭시S6를 공개했다. 당시 월스트리트저널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중 가장 아름답다"며 디자인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 뉴욕타임즈로 타임즈도 "갤럭시S6 엣지는 아이폰6와 다른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냈다"고 평했다. 이어 국내 언론사는 물론 외신들 역시 '디자인'과 '삼성페이' 등을 강점으로 꼽았다.

그러나 최근 해외 IT 전문 매체들은 갤럭시S6의 배터리에 대한 문제점을, 국내 블로그들도 제품에 일체형 배터리와 무선충전, 메모리 확장성을 두고 지적하는 분위기다.



삼성전자 갤럭시S6 무선충전 모습(왼쪽)과 삼성전자가 지난해 미국에서 공개한 애플 비판 광고.

우선 터포르의 디지털 시간여행 블로그에는 무선충전방식에 대해 ▲무선충전패드를 휴대하고 다녀야만 무선충전이 가능하고 ▲자기유도방식·짧은 충전거리와 ▲출력이 낮아 충전 속도 느린점을 단점으로 지적했다.

블로거 터포르는 "자기유도방식의 표준은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무선충전 패드의 WPC방식과 기업단위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PMA로 나뉜다. 갤럭시S6는 이 두가지 모두 지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충전패드의 코일 접점에 스마트폰을 밀착시켜야 충전이 되고, 많은 이들이 짧은 충전 거리 때문에 케이블 방식과 차이가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블로거는 실제 갤럭시노트4의 무선충전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하며 "충전은 되지만 인식이 잘 되지 않는다. 케이블로 충전하는게 빠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이 발표한 '10분 충전 4시간사용'은 유선 충전시 가능하다. 일부 언론에서는 고속충전 방식을 무선 충전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도해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오고 있다.

또 외장 SD카드 슬롯이 없어 추가 메모리 확장 불가, 하드웨어도 지적되고 있다. 블로거 '석고미'는 "무선충전, 고속충전, 삼성페이를 제외하면 전작에 비해 하드웨어 적인 부분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며 "갤럭시S5는 방수 기능과 배터리 교체가 가능하지만 갤럭시S6에는 이 기능이 제외됐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내용은 미국의 IT 전문 매체인 씨넷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

또 삼성전자가 지난해 미국에서 애플 일체형 배터리를 조롱하는 광고를 했지만 1년만에 결국 따라가는 모양새가 됐다는 의견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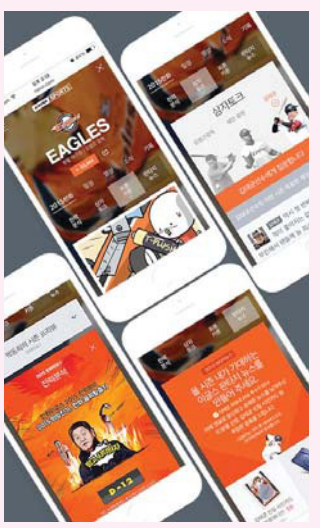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프로야구 개막 맞춰 팬심 흔든다

네이버·SK컴즈 실시간 생중계

국내 포털업체들이 한국 프로야구와 미국 프로야구 시즌 개막을 앞두고 야구팬 확보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 프로야구 10구단 시대와 류현진, 추신수, 강정호 등 한국인 메이저리거 3인방이 MLB 리그에 본격 출격하면서 프로야구 특수를 누리겠다는 전략이다.



네이버는 프로야구 '마이팀'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국내 프로야구 마케팅에 집중한다. 마이팀은 ▲10구단을 분석해 알기 쉬운 인포그래픽으로 보여주는 전력분석 코너 ▲각 구단의 핵심 3명을 만나 시즌 각오 등을 들어보는 '삼자토크' ▲이용자들의 상상력으로 꾸며지는 2015 구단 '판타지뉴스' 등으로 구성됐다.

마이팀은 17일 한화를 시작으로 26일 KT까지 하루에 한 팀씩 차례로 소개한다.

또 해외야구 세션에서는 FOX SPORTS 칼럼니스트 C.J. 니코스키가 한·미·일 야구리그의 뒷이야기를 칼럼으로 연재한다.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류현진, 추신수 선수의 일기도 계속 연재된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류현진, 추신수 선수의 경기를 포털 네이트와 메신저 네이트온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한다. 지난 13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오리아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와의 시범경기에 출전한 류현진 선수의 선발 등판 경기를 시작으로 2015년 MLB 시즌 중계에 돌입했다. 류현진, 추신수 선수가 출전하는 전 경기를 생중계하고 경기일정, 하이라이트 영상 등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네이트는 PC나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생중계나 놓친 경기장면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네이트 앱에 접속해 류현진 선수 경기를 미리 알려주는 알림 기능을 설정하면 경기 일정을 일일이 체크하지 않아도 경기를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다. /이지하 기자



'2014년 소프트웨어 멘토링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학생들(성균관대, 한국교원대, 춘천교육대)과 교수(성균관대 김재현 교수, 한국교원대 이영준 교수, 춘천교육대 김기범 교수)들이 지난 15일 네이버 그린팩토리에서 진행된 멘토링 기념행사에 참여해 환하게 미소짓고 있다. /네이버 제공

네이버, 학생 대상 SW 교육 활동 확대

멘토링 교육 차원 제주대·영남대·광주교육대 등과 추가제휴

네이버(주)(대표이사 사장 김상헌)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고자 콘텐츠 제작·보급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해온 '소프트웨어야 놀자' 캠페인을 작년에 이어 올해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초중고 교사들이 현장에서 SW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과 기존에 진행해왔던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된다.

올해는 교사들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 중심의 SW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교육청, 성남시 등과 협력해 전국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SW 교수법과 교안 콘텐츠 등을 통해 교사 자질을 높일 수 있는 '교원 SW직무 연수 프로그램'을 3월부터 진행한다.

다양한 지역으로의 SW 교육 접근성 확대와 예비 교원들의 SW 교육 역량 강화 취지로 진행해왔던 '대학생 멘토와 함께하는 소프트웨어 교실' 활동을 기존 성균관대(서울), 한국교원대(충북), 춘천교육대(강원) 외에 제주대(제주), 영남대(경북), 광주교육대학교(광주), 가톨릭관동대학교(강릉) 등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새롭게 선발되는 대학생들은 멘토링 교육을 수료한 뒤, 지역 초등·중학생들의 멘토가 되어 4월부터 무료 소프트웨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체험교실 등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소프트웨어에 흥미를 갖고,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김지현 네이버 초중고 SW 유닛장은 "네이버는 인터넷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아이들이 새로운 디지털 경제 시대를 주도하는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며 "소프트웨어 교육 능력을 갖춘 전문 교사들을 적극 양성해나감과 동시에 더욱 다양한 지역의 학생들이 SW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작년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대학생 80여 명을 본사로 초대해 소정의 장학금과 수료증을 수여하고, 교육 후기 등을 나누는 기념행사를 지난 15일 열었다. /김종훈기자 fun@



“나를 키운건 두번의 시련”



황정음(30)은 MBC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2009)부터 배우로 존재감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 ‘자이언트’(2010) ‘내 마음이 들리니’(2011) ‘골든 타임’(2012)에 출연했고 ‘비밀’(2013)을 통해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지난해 ‘끝없는 사랑’과 올해 MBC 드라마 ‘킬미힐미’를 통해 믿고 보는 배우가 됐다.

/전효진기자 jeonhj89@

“기계적으로 연기한 적 없었어요. 그런데 ‘킬미힐미’를 하면서 처음으로 느꼈죠. 기계라기보다는 굳이 감정을 잡지 않았는데 울고 있더라고요. ‘몸이 기억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혼란스러웠어요. ‘하이킥’ 때만 해도 눈물 연기를 못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코믹이 어려워요. 호흡이 빠르고 대사가 완벽히 숙지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하이킥’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킬미힐미’를 하면 저의 또 다른 모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아서 ‘내가 고갈됐나’ 싶기도 했죠.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룹 슈가로 데뷔했다. 배우로 전향한 후 끊임없이 연기하면서 슬럼프를 두 번 겪었다고 고백했다.

“제 인생에서 슬럼프는 2번 있었어요. 정말 힘들었던 한 번은 슈가 시절이요. 첫 실수였고 두 번째는 ‘골든 타임’ 때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슈가, 골든타임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줬어요. 사람은 고생해야 하나 봐요. 지금의 제가 슈가 시절 황정음을 만난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현재 만족스럽지 않아도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슈가 멤버들에겐 미안할 때도 있는데 그 친구들도 이해해요. 저희 사이 좋습니다. (웃음)”

슈가·‘골든타임’때 힘들었다
눈물연기 보다 코믹 어려워
‘킬미힐미’ 통해 중국 얻었죠
결혼이요? 4년 후 할겁니다 ”

배우 지성과 ‘비밀’ 이후 2년 만에 재회했다. 실제로 10살, 8살 터울 오빠가 있는 황정음은 “오빠 하나를 더 얻었다”며 지성과의 연기 호흡을 만족해했다.

“지성은 결혼하고 더 여유 있어졌어요. 함께 연기하면 감정을 많이 주고 받죠. 지성의 연기를 보면서 사람의 영역을 넘어선 거 같았어요. 저라면 못 했을 거예요. 다만 5년이 지나 내공 생기면 다중 인격을 해보고 싶어요. 지성과 또 작품 하는 건 좋지만 바로 하고 싶진 않아요. 4년 후 저도 결혼했을 때 할래요. 오빠는 유부남이잖아요. (웃음) 저는 33~34세 즈음에 결혼할 생각이에요. 파트너는 모르죠. 34세 즈음 옆에 있는 남자와 결혼할거예요. 김용준과 할래요. (웃음)”

지성의 비중이 돋보이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황정음은 ‘킬미힐미’를 통해 중국을 얻었다.

“역할마다 정해진 크기가 있다고 봐요. 경험을 통해 알게 됐죠. 장면마다 의도가 있는데 누군가가 욕심을 내면 그 의도가 틀어지고 작품에 영향을 줘요. 결국 저 스스로에게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비밀’ 때 많이 느꼈죠. ‘킬미힐미’는 지성의 작품인 걸 알고 시작했어요. 제가 얻을 건 ‘중국’이었죠. (웃음) 중국 투자가 있는 작품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뭘 얻었는지는 아직 비밀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와 달리 계산적이에요. 다이어리에 이 드라마에 들어 가야 하는 이유와 들어가지 않아야할 이유가 적혀있죠. 지성의 연기를 이겨서 작품이 풍성해 진다면 욕심을 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감독이 저를 오리진으로 캐스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만 충실했습니다.”

디자인/박은지

star bag

5월 아시아 6개국 투어



배우 **송재림**이 5월 16일 태국을 시작으로 중국·대만 등 6개국 팬미팅 ‘송재림 퍼스트 아시아 투어! 투게더’를 연다. 이번 투어는 한국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소속사에 따르면 송재림은 각국 팬을 만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팬미팅 전반에 참여했다.

김성균·유선과 ‘퇴마사’ 출연



배우 **차예련**이 영화 ‘퇴마사’에 출연해 김성균·유선과 호흡을 맞춘다. ‘퇴마사’는 ‘이웃사람’을 연출하고 옴니버스 영화 ‘무서운 이야기2’에 참여한 김휘 감독의 신작으로 신진오 작가의 공포소설 ‘무녀굴’에서 모티브를 얻은 작품이다.

‘성주가도2’ 훈남 셰프 변신



배우 **정일우**가 지난 14일 장쑤위성TV 중국 요리 예능 프로그램 ‘성주가도’ 시즌2에서 훈남 셰프로 변신했다. 이날 사천요리부터 생선요리, 한국식 퓨전요리까지 수준급 요리 실력을 보여줬다. 특히 양파썰기 대결에서는 뛰어난 칼질로 1등을 차지했다. ‘성주가도’ 시즌2는 내달 초 방송된다.

아시안 필름 어워드 공로상



임권택 감독이 오는 25일 마카오에서 열리는 제9회 아시안 필름 어워드에서 공로상을 수상한다. 공로상은 아시아 영화 발전에 공헌을 한 영화인의 공을 기리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임 감독은 26일 제39회 홍콩 국제영화제에서 신작 ‘화장’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희선 "학교 폭력 남일 같지 않아"

수목극 '앵그리맘'서 강한 모성애 연기

배우 김희선이 모성애를 새삼 느끼고 있다.

김희선은 MBC 새 수목극 '앵그리맘'에서 날라리 여고생 출신 엄마 조강자 역을 맡았다. 고등학생 딸 오아란(김유정)이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학생으로 위장하는 인물이다. 국어 교사 박노아(지현우)와 비리로 얼룩진 학교 재단의 비밀을 파헤친다.

17일 상암동 MBC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김희선은 "딸이 7살인데 실제로 유치원에서 끼리끼리 노는 게 있다고 한다"며 "남 일 같지 않고 내 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조강자보다 더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엄마들의 마음은 조강자 같지만 여건이 안 되고 비현실적이다보니 실현하지 못할 뿐"이라며 "몇 년 후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촬영하면서도 씁쓸하다. 조강자가 딸을 구하려고 고등학생으로 변신하는 게 통쾌하다"고 엄마의 마음을 전했다.

20여 년 만에 교복을 입은 데 대해선 "나이 먹은 티가 난다"며 "촬영 때문에 줄인 게 아니라 요즘 아이들이 입는 교복 그대로다. 이렇게 짧을 지 몰랐다. 적응이 되지 않는다"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

작품은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마주한다. 김희선은 "무거운 주제를 다룬다"며 "'앵그리맘'을 통해 학교 폭력이 완전히 근절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출연 소감을 전했다. '킬미 힐미' 후속작으로 18일 첫 방송된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배우 김희선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상암신사옥에서 열린 드라마 '앵그리 맘'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음원차트' 라이벌 의기투합

다비치×매드클라운, 신곡 '두사랑' 발표





한 때의 '음원 차트' 라이벌이 의기투합 했다.

여성듀오 다비치(오른쪽 사진)와 래퍼 매드클라운(왼쪽)이 함께 부른 디지털싱글 '두사랑'을 18일 발표한다.

다비치와 매드클라운은 지난 1월 각각 '또 운다 또'와 '화'로 음원 차트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친 바 있다. 번갈아가며 '차트 올킬'의 기록을 세웠던 두 아티스트의 만남에 음악 팬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두사랑'은 '썸'의 이전 이야기를 담은 곡으로, 다비치의 감성과 매드클라운의 랩이 잘 어우러졌다. 힙합을 베이스로 한 봄과 어울리는 상큼한 멜로디와 솔직한 가사가 특징이다.

/김지민기자 langkim@

예능 대세 박혁권, 김우빈 멘토?

'스물'서 존철살인 코믹 연기 펼쳐



최근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웃음을 선사했던 배우 박혁권이 오는 25일 개봉하는 영화 '스물'(감독 이병헌)에서 김우빈의 멘토 역할로 코믹 연기를 펼친다.

'스물'에서 박혁권은 극중 영화감독 역을 맡았다. 배우 지망생 은혜(정주연)를 따라 영화 촬영 현장을 들락날락하는 치호(김우빈)에게 영화감독이라는 꿈을 꾸게 하는 장본인이다.

드라마 '밀회'에서 속물스러운 음대 교수로 주목을 받았던 박혁권은 최근 '무한도전'에 출연해 숨겨둔 예능감을 발휘해 화제가 됐다.

'스물'에서 그가 맡은 영화감독은 진지한 듯 엉뚱하고 까칠한 듯 허술한 인물이다. 영화를 하고 싶다는 치호에게 "영화감독 하지 마. 힘들어. 우울증 걸려"라는 촌철살인의 대사를 날리는 괴팍한 캐릭터로 관객에게 웃음을 선사한다.

이병헌 감독은 박혁권이 연기한 영화감독에 대해 "내가 영화 몇 편을 하고 나면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상상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혁권이 나른하고 감정기복이 심한 영화감독 캐릭터를 정말 잘 표현해줬다. 치호가 그런 모습을 보고 멋지다고 생각하는 설정이 더 엉뚱하고 재미있게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스물'은 인기만 많은 치호, 생활력만 강한 동우(이준호), 공부만 잘하는 경재(강하늘)까지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순간을 함께 한 스무 살 동갑내기 세 친구의 이야기를 그린 코미디 영화다.

/장병호기자 solanin@

TV 하이라이트

3월 18일 (수)



강원래 아들 댄스왕

◆ KBS1 '엄마의 탄생'

오후 7시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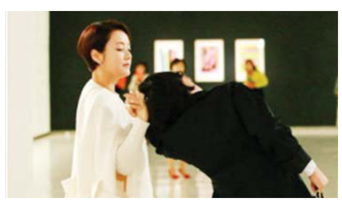
강원래·김송 부부의 아들 선이(생후 7개월)가 댄스왕으로 등극한다. 강원래의 후배들은 이날 선이를 만나기 위해 집을 방문한다. 선이는 좋아하는 동요가 들리자 아빠의 춤실력 못지 않은 몸놀림으로 삼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뿐만 아니라 강원래 가족이 오랜만에 외식하는 가운데 선이와 할아버지 사이에 묘한 신경전이 벌어질 예정이다. 과연 신경전의 승자는 누구일까?



◆ JTBC '유자식 상팔자'

오후 9시40분

새 학기를 맞아 사춘기 등교 대전쟁 특집이 방송된다. 특히 조갑경과 조민희는 각자의 자녀들과 새 학기 등교를 위해 아침 잠과 사투를 벌인다. 두 엄마의 꾸밈없는 모습이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 KBS2 드라마 '착하지 않은 여자들'

오후 10시

장모란(장미희)과 나현애(서이숙)가 갤러리 육탄전을 벌인다. 우아한 모습만 보여줬던 장모란의 도발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나현애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다. 그가 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지 공개된다.



◆ 채널A '나는 몸신이다'

오후 1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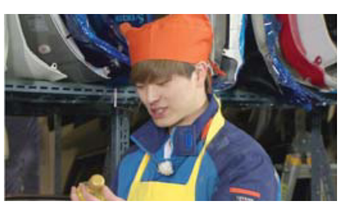
척추 건강을 다룬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선수촌 재활 트레이너와 프로야구팀 전담 재활 트레이너로 활동했던 김유재가 출연해 막대기를 이용해 척추를 관리하는 셀프 막대기 건강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 JTBC '선암여고 탐정단'

오후 11시

마지막 14회가 방송된다. 학교 안팎에 의문의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소녀 탐정단 안채율(진지희)은 지난 주 하연준(김민준)의 서재에서 악마의 대본을 손에 넣었다. 안채율의 의뢰로 마지막 수사를 시작한다.



◆ KBS2 '투명인간'

오후 11시10분

막내 육성재가 일일 셰프로 활약한다. 멤버들은 지난주 가마솥 만들기에 도전했다. 육성재는 가마솥을 이용해 완성한 요리를 직장인들에게 대접해 차원이 다른 '국방'을 보여줄 예정이다.



◆ MBC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오후 11시15분

김지영·강예원·박하선·안영미가 출연해 '진짜 사나이-여군특집 2' 비화를 이야기한다. 특히 FM 병사 모습을 보여줬던 박하선은 "살면서 처음 뱃속 깊숙이 숫자 욕이 나온 적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 SBS '즐거운가'

오후 11시15분

장동민과 이종원이 태안 앞바다에서 갓 잡은 숭어로 요리 대결을 벌인다. 장동민은 숭어 매운탕, 이종원은 숭어초밥과 계란초밥, 소시지 부침을 완성한다. 숭어 3종 세트 요리를 본 멤버들의 반응은?



◆ KBS1 '문화빅뱅 윤건의 더 콘서트'

오후11시40분

한국 재즈 1세대들이 결성한 재즈밴드 야누스가 출연한다. 한국 재즈의 대모 박성연은 클럽 야누스를 37년째 운영 중이다. 매일 무대에 올라 노래하는 현역 보컬이다. 투병 중인 몸으로 무대에 오른다.



3월 14일 토 밤 11시 첫방송
FashionN
깐깐한 그녀들의 리얼검증 프로젝트
Real
Follow me 5
Queen
더 세졌고, 더 깐깐해진 리얼퀸들이 돌아왔다
t.cast
E channel
SCREEN
DRAMAcube
view
FashionN
CINEf
CHAMP
FOX
FOX life
FX

슈틸리케호 동국 빠지고 동원 첫 승선

3월 A매치 명단 발표

김보경도 대표팀 발탁 차두리 31일 은퇴경기



울리 슈틸리케 축구 대표팀 감독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우즈베키스탄과 뉴질랜드 평가전에 나설 23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소속팀에서 주전 입지를 굳히며 맹활약하고 있는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과 김보경(위건)이 2014 브라질 월드컵 이후 처음으로 '슈틸리케호'에 합류했다.

울리 슈틸리케 축구 대표팀 감독은 17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우즈베키스탄(27일 오후 8시·대전월드컵경기장)과 뉴질랜드(31일·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 평가전에 나설 23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최전방 공격자원으로 지동원과 '슈틸리케호 황태자' 이정협(상주) 카드를 뽑아들었다. 더불어 최근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위건 애슬레틱으로 이적해 최근 6경기 연속 풀타임 출전하며 골맛까지 본 김보경(위건)도 뽑았다.

기대를 모은 '제2의 이정협'으로는 지난해 12월 아시안컵을 앞두고 1차 전지훈련에 합류했던 '젊은 공격수' 이재성(전북)이 눈길을 끈다. 지난해 K리그에 입문한 이재성은 첫 시즌 26경기에 나서 4골 3도움의 맹활약을 펼치면서 '영플레이어상' 후보에 올랐다.

이재성은 지난 3일 상하이 선화와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2차전에서 골맛을 보는 등 전북의 핵심 공격수로 맹활약하고 있다.

더불어 K리그의 정상급 수비형 미드필더로 인정받은 김은선(수원)도 행운을 얻었다.

아시안컵을 앞두고 부상으로 최종 명단에서 빠진 왼쪽 풀백 윤석영(QPR)이 이름을 올려 김진수(호펜하임)와 치열한 주전 경쟁을 펼치게 됐다.

이밖에 슈틸리케호 주전 골키퍼로 성장한 김진현(세레소 오사카)을 비롯해 '손세이셔널' 손흥민(레버쿠젠), '캡틴' 기성용(스완지시티) 등 아시안컵에 나선 주전 대부분이 소집됐다.

반면 골키퍼 정성룡(수원)과 이명주(알 아인), 김민우(사간 도스), 조영철(카타르SC), 이근호(엘 자이시)는 명단에서 제외됐다. 최근 부상에서 회복한 '라이언킹' 이동국(전북)도 부르지 않았다.

한편 태극마크 반납을 선언한 '차미네이터' 차두리(서울)는 31일 뉴질랜드전에서 대표팀 은퇴경기를 치른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축구대표팀 명단(23명)

FW=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 이정협(상주)

MF= 기성용(스완지시티) 구자철 박주호(이상 마인츠) 손흥민(레버쿠젠) 김보경(위건) 한국영(카타르SC) 남태희(레퀴야) 한교원 이재성(이상 전북) 김은선(수원)

DF= 장현수(광저우 부리) 김창수(가시와 레이솔) 김영권(광저우 헝다) 곽태휘(알 힐랄) 김진수(호펜하임) 차두리(서울) 김기희(전북) 김주영(상하이 상강) 윤석영(QPR)

GK= 김진현(세레소 오사카) 김승규(울산)

모비스 vs LG·동부 vs 전랜

프로농구 4강 PO 오늘 스타트

농구 코트를 뜨겁게 만들 2014-2015 KCC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가 18일부터 펼쳐진다.

올해 4강 플레이오프는 정규리그 1위 울산 모비스와 4위 창원 LG, 2위 원주 동부와 6위 인천 전자랜드가 5전3승제로 맞붙는다.



모비스-LG전은 지난 시즌 챔피언결정전에서 싸웠던 팀들의 재대결이고 동부-전자랜드전에서는 6강에서 이변을 만들어낸 전자랜드의 상승세가 이어질지에 팬들의 관심이 쏠린다.

모비스는 가드 양동근과 포워드 문태영, 외국인 선수 리카르도 라틀리프가 팀 전력의 주축을 이루고 LG는 포워드 문태종과 센터 김종규, 외국인 선수 데이본 제퍼슨이 주력이다.

지난 시즌 결승에서는 모비스가 4승2패로 앞섰고 올해 정규리그에서는 3승3패로 팽팽히 맞섰다. 정규리그 팀 평균 득점 1위 LG(80.1점)와 2위 모비스(78.4점)가 만나 화끈한 '공격농구'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동부-전자랜드전은 객관적인 전력에서 동부가 절대적으로 우세하다. 동부가 정규리그에서 12승이나 더 거뒀고 상대 전적에서도 4승2패로 앞섰다.

단기전에서 특히 중요한 제공권에서도 김주성(205㎝), 윤호영(197㎝), 데이비드 사이먼(204㎝)이 버틴 동부가 월등하다.

하지만 전자랜드는 6강에서도 열세라는 예상을 뒤엎고 서울 SK를 3전 전승으로 완파한 상승세가 무섭다. /김민준기자

정근우 수비훈련 시작 출전 가시화

시범경기 막판 출격 가능



턱 골절 부상으로 시범경기에 나서지 못한 정근우(33·한화 이글스·사진)가 복귀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넥센 히어로즈와 시범경기를 앞두고 캐치볼부터 타격훈련, 수비훈련을 모두 소화한 정근우는 "타격훈련은 꾸준히 해왔다. 15일부터 본격적인 수비 훈련을 시작했다"며 "요샌 펑고도 받는다"고 말했다.

김성근(73) 한화 감독은 "최근 정근우와 마주칠 때마다 '경기에 나설 수 있나'라고 묻는다"며 "어제는 '수비할 때 부담이 될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 밝혔다.

김 감독은 정근우가 본인의 판단에 따라 그라운드에 나설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는 생각이다.

정근우는 지난달 13일 일본 고치에서 열린 일본 프로야구 세이부 라이온스와 평가전에서 수비중 공에 턱을 맞아 아래턱뼈에 미세한 골절 부상을 당했다. 복귀까지 4주가량 소요된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그동안 계속 러닝 훈련과 웨이트 트레이닝, 타격 훈련 등으로 감각을 유지해왔다.

최근 부상 부위 통증도 없어 시범경기 막판 경기 출전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김 감독과 정근우가 출전 시기를 조율하는 것만 남았다. /김민준기자

기성용 80분 활약

스완지, 리버풀에 패



기성용(26·사진 왼쪽)이 뛰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스완지시티가 리버풀에 석패했다.

스완지시티는 17일(한국시간) 영국 웨일스의 리버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4-2015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 홈 경기에서 리버풀에 0-1로 졌다.

올 시즌 아스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강팀을 홈에서 모두 이기며 강세를 보였던 스완지시티는 리버풀의 벽은 넘지 못했다. 캐피털원컵까지 포함해 이번 시즌 리버풀과의 대결에서 3전 전패다.

선발로 나선 기성용은 후반 35분 네이선 다이어와 교체될 때까지 그라운드를 누볐다. 기성용이 풀타임 뛰지 않은 것은 지난해 12월 30일 리버풀전 이후 처음이다.

스완지시티는 전반을 주도하고도 결실을 보지 못했다. 결국 후반 들어 살아난 리버풀의 기세에 밀리며 후반 23분 조던 헨더슨에게 결승골을 얻어맞았다. /김민준기자

'위플래쉬'서 경쟁이 낳은 광기를 발견하다



기자 수첩

장 병 호
<문화스포츠부 기자>

지난 주말 서울의 한 멀티플렉스 극장을 찾았다.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조연상과 음향믹싱상, 편집상을 수상한 영화 '위플래쉬'를 관람하기 위해서였다. 200여석의 상영관을 가득채운 관객은 비수기 극장가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였다.

영화는 듣던 대로 대단했다. 촬영, 편집, 연기의 3박자 모두 부족할 것이 없었다. 재능의 한계를 뛰어넘는 예술가의 탄생을 목격하고 싶은 스승과 최고의 재즈 드러머가 되고 싶다는 야망으로 가득한 제자가 펼치는 극한의 대결은 흡사 스릴러 영화를 보는 듯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영화의 대미를 장식하는 드럼 연주가 펼쳐지자 관객들은 숨죽인 듯 스크린에 빠져들었다. 영화가 끝나는 순간 극장을 가득 채운 것은 예술의 경지를 목격할 때 나올 법한 경탄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위플래쉬'의 마지막 장면을 놓고 통쾌하다고 말한다. 자신을 괴롭히던 스승 플렛처(J.K. 시몬스)를 향해 보란 듯이 한계를 넘어서는 앤드류(마일즈 텔러)의 모습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란 어렵지 않다. 예술가만이 느낄 수 있는 이 절정의 감정이 곧 '위플래쉬'가 전하는 통쾌함의 정체일 것이다.

그러나 영화를 보고 난 뒤 남은 것은 통쾌함이 아닌 석연치 않은 감정들이었다. 플렛처와 앤드류의 관계에서 예술가의 이야기가 아닌 이 사회의 단면이 보였기 때문이다.

플렛처는 앤드류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에게 경쟁을 강요한다. 그의 철학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계를 뛰어넘어라'라는 명제와도 같다. 한계를 뛰어넘지 못할 때는 인간적인 모욕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 모습에서 성과만을 중요시 여기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성공 논리를 발견하기란 어렵지 않다.

그래서일까. '위플래쉬'는 예술가의 이야기보다 경쟁이 낳은 광기의 섬뜩함을 말하는 영화처럼 보인다. 플렛처의 광기는 앤드류에게 예술가로서의 성공을 안겨주지만 동시에 그를 인간이 아닌 괴물로 만들어버린다. 이 통쾌함을 마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다.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늦깎이 직장인인데 돈 잘 벌까요
평범한 길 갈 듯… 41세에 사업운

소설가도널드 남자 80년 12월 6일 새벽 5시 20분

Q 상담하고자 하는 사람과의 관계 : 저 본인의 문제입니다. 80년 12월 6일 새벽 5시 20분으로 30대 중반 남성입니다. 군대를 늦게 다녀왔고 그래서 직장을 늦게 잡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돈을 잘 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자 친구는 언제쯤 생길지, 결혼은 언제쯤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요즘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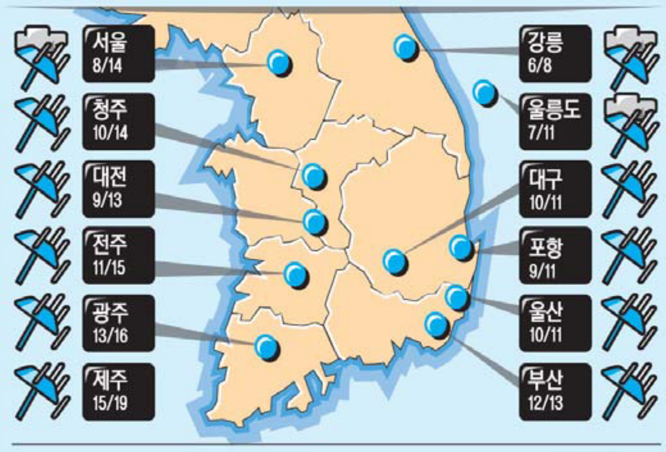
A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적게 벌어도 꼼꼼히 모아서 알뜰하게 모을 수 있는 구성입니다. 역학용어로 남자에게 재성(財星:내가 극하는 오행)은 재물과 이성을 의미하는데 그중에 정재(正財:내가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른 것의 기호)는 정규적으로 직장을 다닌 노력에 의해 들어오는 재물을 나타내며 사람으로는 부인을 뜻합니다. 인수격으로 평범하게 정도의 길을 가는 사주이나 41세쯤 동업으로 사업을 하는 기운이 오는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사전에 반드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이성과 인연이 되는데 느긋하고 넓은 마음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헌신적인 마음을 갖는다면 식상운(食傷運:내가 생해주는 오행)으로 식록(食祿)이 있어 자신의 먹거리가 마련되는 셈이라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호사다마(好事多魔)라 좋은 일 뒤에는 마가 끼듯이 모아놓은 돈이 없다고 위축을 하게 되면 대인관계에서 고립 되는 수가 있으므로 연인을 만날 때나 직장에서 애사심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의 성정은 '마르지 않는 습토'와 같아 음기(淫氣)를 품어 일도정진(一道精進)하는 끈기와 집념을 보이는데 경쟁에서 무척 노력하는 유형이지만 지나친 과욕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힐 수 있으므로 지혜를 얻기 위해 학문과 수양이 필요 합니다. 외로울 때마다 책을 보십시오. 고인이 되신 재벌회장님들의 자서전도 있고 요즘 다시 대두되는 징비록도 있을 것이며 손자병법도 찾아보십시오. 인간미가 조금은 부족한 편이므로 타인을 위한 봉사심을 키울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나중에 덕필유인(德必有隣:덕을 베풀면 반드시이웃이 있다)이 되어 이로운 일이 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날씨

3/18 水 일출시각 06:40 일몰시각 18:41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일교차가 커지면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소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아침저녁으로 급변하는 기온을 대비할 수 있는 옷차림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6					3			
		5		4				3
		8			9	1		7
1				8		4		2
		2				6		
7		3		2				5
3		4	1			5		
5				9		3		
			4					9

3			6				1	4
		2			3	9		5
1		9	4					
	9			8				3
4				3			5	
					5	7		1
5		6	7			3		
7	1				4			2

스도쿠 정답

6	7	9	5	1	3	2	4	8
2	1	5	7	4	8	9	6	3
4	3	8	2	6	9	1	5	7
1	5	6	9	8	7	4	3	2
9	8	2	3	5	4	6	7	1
7	4	3	6	2	1	8	9	5
3	9	4	1	7	2	5	8	6
5	2	7	8	9	6	3	1	4
8	6	1	4	3	5	7	2	9

3	7	5	6	9	8	2	1	4
6	4	2	1	7	3	9	8	5
1	8	9	4	5	2	6	3	7
2	9	1	5	8	6	4	7	3
8	5	3	9	4	7	1	2	6
4	6	7	2	3	1	8	5	9
9	3	4	8	2	5	7	6	1
5	2	6	7	1	9	3	4	8
7	1	8	3	6	4	5	9	2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신점[神占] 운세

3월 18일 (음 1월 28일) 사주스타(www.sajustar.com) 060-300-8400

쥐 — **48년생** 여행 가고자 하는 곳에 도적이 들끓습니다. **60년생** 바쁘게 움직여야 할 시기입니다. **72년생** 건강이 나빠지게 되는 때입니다. **84년생** 원대한 꿈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소 — **49년생**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61년생**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됩니다. **73년생** 더 가지려 말고 현재 것을 잘 간수하세요. **85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릅니다.

호랑이 — **50년생** 가는 곳 마다 사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62년생** 일은 풀리지 않고 얽혀갑니다. **74년생** 주변에 휩싸이지 마세요. **86년생** 조그만 소망은 이루어지니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토끼 — **51년생** 좋은 사람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63년생** 현재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75년생** 건강문제는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87년생**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 — **52년생** 주변 사람들과 의논하고 실천하세요. **64년생** 자식들에게 안부 전화하도록 하세요. **76년생** 친척의 도움을 받아 어려운 일을 쉽게 해결합니다. **88년생**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하세요.

뱀 — **53년생** 귀하의 약점이 들어날 수 있습니다. **65년생** 생각도 못했던 곳에서 경쟁자 나타납니다. **77년생** 금전, 직장, 이성운 모두 불리합니다. **89년생** 말 실수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말 — **54년생** 삶을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세요. **66년생**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78년생** 의외의 소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90년생** 취업운이 없는 하루입니다.

양 — **55년생** 고집을 버리고 행동하는 것이 길합니다. **67년생** 이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79년생**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세요. **91년생** 어린 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원숭이 — **56년생** 두서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68년생** 혼자의 힘으로 목표 달성 어렵겠습니다. **80년생** 참고 인내하면 노력의 결실이 있겠습니다. **92년생** 아직 때가 아니니 좀더 기다려야 합니다.

닭 — **57년생** 선후배의 도움을 구하세요. **69년생** 재발된 병으로 가족에게 근심 주게 됩니다. **81년생** 마음에 안정이 없고 중심이 없어 힘든 하루입니다. **93년생** 분수를 알고 행동하세요.

개 — **58년생** 지금 하는 일에 열중하세요. **70년생** 노력이 소망을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82년생** 기다리던 소식이 오는 운입니다. **94년생** 첫 단추를 잘 끼우면 일이 술술 풀리게 됩니다.

돼지 — **59년생** 밀려오는 부채로 인해 어려운 시기입니다. **71년생** 집안에 경사가 있겠습니다. **83년생** 혈압이나 스트레스를 주의하세요. **95년생** 더 가지려 말고 현재 것을 잘 간수하세요.



건국대 물결 프로젝트 17일 경기도 고양시 행주대교 인근 행주나루 선착장에서 건국대 인액터스팀 학생들이 한강에 마지막으로 남은 33명의 행주나루 어부들을 위한 '물결 프로젝트-행주나루 활성화'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생 한달 생활비 40만원

알바천국 '새학기 생활비와 소비현황' 발표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한 달을 살려면 40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은 전국 대학생 750명을 대상으로 '새학기 생활비와 소비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학생의 한 달 평균 생활비가 지난해보다 1000원 오른 40만9000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알바천국에 따르면 대학생 한 달 생활비 지출 규모는 '30만~40만원'이 30.3%로 가장 많았다. '20만~30만원'이 24.5%로 2위에 올랐고 '40만~50만원(18.8%)'과 '10만~20만원(9.2%)'이 그 뒤를 이었다.

전년과 대비하면 30만원 이하 구간이 감소(-4.8%)했고 30만~100만원 구간이 골고루 상승(+5%)했다. 80만원이 넘는 고비용 지출 역시 작년(3.3%)보다 0.1% 높은 3.4%를 기록했다.

아울러 생활비 중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한 것은 '외식비(28.5%)'다. 지난해 4위에 머물렀던 '학습비'가 올해 2%포인트 가량 상승해 20%의 응답률을 얻어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대학생들은 '품위유지비(16.3%)'와 '교통비(13.6%)' 등에 대한 지출이 많았다.

반면 대학생들이 가장 먼저 지출을 줄인 항목은 작년보다 3.9%포인트 상승한 '품위유지비(26.4%)'였다. 다음으로 대학생들은 '외식비(20.8%)' '유흥비(20.1%)' '문화생활비(13.2%)' 사용에서 소비를 아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서울 하늘 미세먼지 가득 서울지역에 전날 밤부터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17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하늘이 뿌옇게 흐려 있다. /연합뉴스

직진 신호 시 비보호 좌회전 전국 확대

앞으로 신호에 의한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차량 정체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와 같이 신호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먼저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도입한다. 직진 차량이 많지 않은 사거리에서 신호에 의한 좌회전과 비보호 좌회전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으로 연말까지 전국의 1000여 개소에서 실시된다.

이 신호체계에서는 좌회전 신호 때 당연히 좌회전을 하고 직진 신호 때에도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으면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어 좌회전 차량의 소통이 원활해진다. 실제 경북과 전북, 충북 등의 437개 교차로에서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운영한 결과 좌회전 교통량 처리능력이 최대 109%나 늘었다.

또 경찰은 기존 4색 신호등에 비보호 표지 신호판을 설치해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구역임을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차량이 있을 때만 신호가 바뀌는 '교차로 감응신호 시스템'이 경찰서별로 1곳 이상 설치된다.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직진 신호가 유지되다가 좌회전 차선에 차량이 올 경우에만 좌회전 신호로 바뀌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경찰은 2차로 이하 도로를 중심으로 좌회전을, 3차로 이상은 유턴을 허용하는 구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황재용기자

"지난 겨울 자연재해 재산피해 145억"

국민안전처는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자연 재해에 재산 피해가 14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자연 재해에 따른 직접 인명 피해는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전 10년(2004~2013)과 비교하면 인명·재산 피해가 모두 크게 감소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2004~2013년 겨울철 연평균 인명 피해는 1.4명, 재산 피해는 812억원이다.

지난 12월에는 전국 평균 눈 일수(눈이 내린 날의 수)가 10.7일로 관측(1973년) 이래 가장 길었지만 이후로는 눈이 적게 내리는 등 안정된 기상 상황이 유지돼 피해가 줄었다고 안전처는 분석했다. /조현정기자

"서울대생 10명 중 1~2명 학내 성폭력 경험"

다수 소극적 대응…가해자는 '선배' 가장 많아

서울대생 10명 중 1~2명은 학내에서 성폭력을 경험하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불쾌하게 느낀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서울대 총학생회 직무대행인 단과대학생회장 연석회의와 학내 자치언론인 '서울대저널'에 따르면 최근 학내 성폭력 실태를 설문한 결과 응답자 200명 중 33명(16.5%)이 '학내에서 성폭력 및 성(性)과 관련된 불쾌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성폭력을 목격하거나 전해 들은 적이 있다'는 답도 25.5%나 됐다.

성폭력을 당하거나 성적 불쾌감을 느낀 응답자 33명을 상대로 자신이 경험한 성폭력 종류를 묻자(이하 복수응답) '원하지 않는 육체적 스킨십'과 '성적인 농담 및 음담패설'이 각 57.6%로 가장 많았고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45.5%)가 뒤를 이었다.

가해자의 지위는 선배(54.5%), 동기 51.5%, 교수 27.3% 등 순으로 나타났다.

다수 학생은 성폭력을 경험해도 그냥 넘어가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폭력을 경험했을 때 대처 방안'에 대한 질문에 66.7%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30.3%는 '가해자에게 완곡한 표현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답했다. '자신을 자책했다'는 응답도 24.2%에 달했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58.1%), '당황이 되어서'(48.4%), '이상한 소문이 돌 것 같아서'(45.2%)라고 말했다.

성폭력을 목격하거나 전해 들었을 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59.4%로 가장 많았다. 이유로는 41.8%가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이 아니라서'라고 답했다.

앞서 서울대는 강석진 수리과학부 교수가 여러 명의 여학생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경영대 등에서도 교수의 성희롱 의혹이 제기되는 등 잇따른 성범죄 사건으로 논란을 빚었다. /조현정기자 jhj@

인사

■ 행정자치부
◇ 부이사관 승진 ▲ 성과관리과장 고광완 ▲ 조직기획과장 김성중 ▲ 사회조직과장 김형묵 ▲ 정보자원정책과장 김동석 ▲ 공기업과장 김주이 ▲ 정부청사관리소 시설운영과장 황영만
■ 산업통상자원부
◇ 과장급 전보 ▲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과장 김남정
■ 국민안전처
◇ 국장급 승진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일반직고위공무원 한성원
■ 금융위원회
▲자문관 박성욱 ▲위원장실 비서관 하주식
■ 고려대
◇ 교원 보직 ▲ 연구부총장 김수원 ▲ 국제대학원장 겸 국제학부장 김은기
■ 대우인터내셔널
◇ 부사장 승진 ▲ 기계인프라본부장 한찬건 ▲ 원료물자본부장 서명득 ◇ 전무 승진 ▲ 구주지역본부장 정지영 ▲ 자동차부품사업실장 윤경택 ◇ 상무 승진 ▲ 석유가스생산실장 최종빈 ▲ 법무실장 임신택 ▲ 싱가포르무역법인대표 강의환 ▲ 자동차사업실장 김현준 ◇ 상무보 승진 ▲ ERM 실장 김기윤 ▲ 기계전자사업실장 이상훈 ▲ 광주무역법인대표 인용식 ▲ 철강원료사업실장 김철홍 ▲ 광물탐사팀장 김태형 ▲ 기계인프라개발팀장 정인준 ▲ 상해난생대우법인대표 조승현
■ 대한유화
◇ 사장 승진 ▲대표이사 정영태 ◇ 부사장 승진 ▲생산부문장 강길순 ◇ 전무 승진 ▲영업담당 장재권 ◇ 상무 승진 ▲대한도은고분자재료유한공사 총경리 하현수 ▲경영기획담당 최승준 ▲경영지원담당 임중규 ◇ 상무보 승진 ▲환경안전담당 강호철 ▲ 기술연구소장 하만호 ▲올레핀생산담당 이종혁 ▲관리담당 공양일
■ 세계일보
◇ 보직변경 및 전보 ▲ 논설실장 김기홍 ▲ 독자서비스국장 이방열 ▲ 기획조정실 기획팀장 신규택 ◇ 전입 ▲ 광고국 광고관리팀장 장상열
■ 아주경제
▲ 중부권(대전,충남·충북) 취재본부장 허희만

부고

▲ 이병원씨 별세, 이정주(세계일보 전산제작단 차장)·은주·현주·명주(개원중학교 교사)·선주씨 부친상, 허남진(서울대 철학과 교수)·박승현(세승엔지니어링㈜ 사장)·오홍근(세계닷컴 기획위원)·김종복(로직스코리아 대표)씨 장인상 = 16일 오후12시, 서울 양천구 홍익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8일 오전 6시 02-2600-1444
▲김우덕선 씨 별세, 양진석(NH농협은행 진영지점장) 씨 모친상 = 16일, 고성 영락원 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18일 오전 7시 055-672-4444, 010-3831-3796
▲ 이필랑씨 별세, 강문배(대구시 홍보담당관실 뉴미디어팀장)씨 장모상 = 16일 오후 6시 40분,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특6호, 발인 18일 오전 6시. 010-3544-2266
▲ 조청운(전 충주시축구협회장)씨 별세 = 16일 오후 1시 20분, 충주새로운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18일 오전 9시. 043-853-9300

수능·EBS 연계율 70% 유지

수능개선위, 2017학년도 대입까지…영어 지문 직접 활용 축소 검토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2017학년도 대학입시까지 EBS 교재와 수능의 연계율이 70% 수준으로 유지된다.

수능개선위원회(위원장 김신영 한국외대 교수)는 17일 오후 서울교대에서 '수능 출제오류 개선과 난이도 안정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시안을 발표했다.

수능개선위는 시안에서 수능과 EBS 교재의 연계율을 단기간에 바꾸면 수험생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일단 2017학년도 입시까지는 현행 연계율인 70%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또 수능개선위는 영어영역에서 EBS 교재의 지문을 수능에 그대로 활용하는 문항(전체 문항의 70%)의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영어 읽기평가에서 '대의파악'과 '세부정보'를 묻는 문항에 한해 EBS 교재와 다른 지문을 활용하는 방식도 소개됐다.

이와 함께 수능개선위는 수능 난이도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를 출제하고 응시집단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능에서 영역별 만점자가 과도하게 발생해 실수로 등급이 결정되는 현상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영역별로 고난도 문제가 수능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출제 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먼저 수능개선위는 출제진과 검토진의 이원화를 강화할 예정이다. 게다가 검토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출제위원단 소속이던 평가위원을 검토위원단 소속으로 변경하고 검토위원장에게 별도의 외부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오류 가능성이 있는 문항이 검토단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는 '문항점검위원회'도 신설된다.

이외에도 수능개선위는 외부 전문가가 참가하는 '수능분석위원회'를 구성해 출제전략을 수립하고 총리실 산하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이관하는 중·장기적인 과제도 제시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0일 전남대에서 추가로 공청회를 개최한 후 이달 말 수능 개선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동강할미꽃 활짝 강원 정선군 정선읍 귤암리 동강 변에서 동강할미꽃이 꽃망울을 터트렸다. 이 일대에서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동강할미꽃축제'가 열린다. /연합뉴스



'불법운송' 우버택시 관계자 무더기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가 17일 우버테크놀로지 대표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씨와 한국지사장 강모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우버앱'을 통해 모집한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고 불법 운송요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압수된 증거품들. /연합뉴스

진주서 '묻지마 살인'…2명 숨져

경남 진주에서 '묻지마 살인'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17일 오전 6시30분께 진주시 강남동 한 인력공사 사무실 앞에서 전모(55)씨가 윤모(57)·양모(63)·김모(55)씨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고로 윤씨와 양씨가 숨지고 김씨는 어깨에 큰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에서 300m 정도 달아났다가 옷에 피가 묻어있는 전씨를 붙잡았다. 목격자들은 전씨가 인력공사 사무실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김씨에게 다짜고짜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고 진술했다. 이어 전씨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노동일을 기다리던 윤씨와 양씨의 등과 목,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아울러 전씨는 술에 취했거나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씨는 경찰에서 '한국 여자 다 잡아간다' '흑사회 깡패들이다' 등의 발언을 하며 횡설수설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흉기를 휘두른 전씨와 평소 안면은 있지만 잘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전씨가 범행 전날 인근 재래시장에서 흉기를 훔쳤다고 진술해 계획적인 범죄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원전도면 유출 북한해커 소행

중간수사 결과…해킹 세력 실체 파악에 주력

지난해 말 '원전 가동중단 협박'으로 당국을 충격에 빠뜨린데 이어 최근까지 범행이 끊이지 않았던 원전 자료 유출 사태가 북한 해커조직의 소행으로 판단된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1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한수원 사이버테러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원전 반대그룹'을 자칭한 범인은 작년 12월에 5차례, 그리고 지난 12일에 1차례 등 총 6차례에 걸쳐 원전 관련 도면 등을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원전 가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자료 공개를 계속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지난 12일에는 돈이 필요하다는 글을 남겼다.

합수단이 자료 유출 경로를 추적한 결과 원전 관련 도면 등 상당수 자료는 한수원 협력사 임직원의 이메일을 해킹하는 방식으로 유출됐다. 이메일에 악성코드를 침투시켜 컴퓨터를 감염시킨 후 자료를 빼가는 피싱 수법이다. 유출 자료 중에는 한수원 협력사 대표 2명의 컴퓨터에서 빼돌려진 것도 있었다.

아울러 빼돌려진 자료는 교육용 등 일반 용도의 문서가 대부분이고 원전관리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중요 자료는 아니라고 합수단은 설명했다.

합수단은 이런 범행이 북한 해커조직의 소행이라고 판단했다. 12월 9일 이메일 공격에 사용된 악성코드는 북한 해커조직이 쓰는 악성코드 '킴수키(kimsuky)'와 구성·동작방식이 거의 유사하다는 점이 근거로 꼽혔다. 특히 범인은 자료 탈취와 이메일 공격, 자료 공개 등 범행을 저지르면서 IP 추적을 막기 위해 인터넷 가상사설망(VPN) 서비스 업체 H사에서 할당받은 IP를 사용했는데 여기에서도 북한과의 연관성이 발견됐다.

합수단은 범인이 사용한 SNS의 서버가 있는 미국, 범행에 동원한 IP 접속 흔적이 있는 중국 등과 국제 사법공조를 전개해 해킹 세력의 실체와 배후를 파악할 계획이다. /조현정기자 jhj@

대법관 1인당 한달 260건 '업무 과중'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아 대법원은 법관 1인당 한달 평균 260건의 사건을 처리,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심 본안 사건은 2865건에 달했다.

상고심 사건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각 주심을 맡아 소부에서 합의를 거치는데, 대법원은 신영철 전 대법관 퇴임 후 나머지 11명에게만 사건을 배당해왔다.

이 기간 대법관 1인당 주심을 맡은 사건 수는 평균 260건이나 됐다. 공백 사태 없이 12명이 진용을 갖췄을 때와 비교하면 1인당 20여건을 더 많이 떠안은 것이다.

신 전 대법관이 속했던 대법원 2부는 일단 이상훈·김창석·조희대 대법관 3인의 합의로 사건을 심리 중이다. 대법관 3명 이상이면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원조직법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신 전 대법관이 퇴임 전 주심을 맡았다가 미처 처리하지 못한 사건은 사실상 미제 상태로 남아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이완구 국무총리를 만나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친서를 보내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후보자가 1987년 서울지검 검사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청문회 개최 자체를 거부해왔다.

박 후보자 청문회가 끝내 불발될 경우 대법관 공백 사태는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에 앞서 "사람이 너무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정기자